



세상을 밝히는 발명과 특허 이야기

발명특허

VOL.448
2014
SEPTEMBER·OCTOBER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한국도서집자유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 2014년 10월 5일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발행인 | 김광림

편집·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부 고아라(02.3459.2727) www.kipa.org

편집디자인·제작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CONTENTS



꿈꾸고, 행동하고, 창조하라

06

IMAGINATION

적자생존, 모든 위대함을 만드는 기록의 힘

08

ACTION

조직을 혁신하는 '새로운 시각'

- KIPA 주니어보드 개최

12

CREATION

기록의 방식, 기억의 현장

16

IP FOCUS

① 퍼블리시티권, 한류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

Cover Story

- 세계적으로 뛰어난 발명가나 정치가, 음악가, 작가들은 모두 기록광들이었습니다. 슈베르트는 머릿속에 항상 아름다운 악상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을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록하였습니다. 에디슨도 생전에 발명노트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즉시 기록하여 4,500여 권이나 되는 발명노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머리에 맡기지 말고 손끝에 맡겨야 합니다. 창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 ② 특허풀과 독점규제의 관계에 관한 고찰
- ③ 구글+모토로라, MS+노키아, 삼성+?
- ④ 세계 빅데이터 특허 출원 동향

32

발명家 사람들

'소통·협력·혁신'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

36

무한상상 인터페이스

지식재산만이 살길... 제주의 가치를 올리다
- 제주지식재산센터

40

융합콘서트

극사실의 맛을 찾아서

42

지식 더하기, 기술 나누기

임플란트 맞춤형 시대를 선두하다
- 라파바이오(주)

46

생활 속 발명이야기

평범했던 엄마, 빛나는 엄마가 되다

48

IDEA 공작소

검은 땅 위에 핀 무지개

52

글로벌 동향

56

IP NEWS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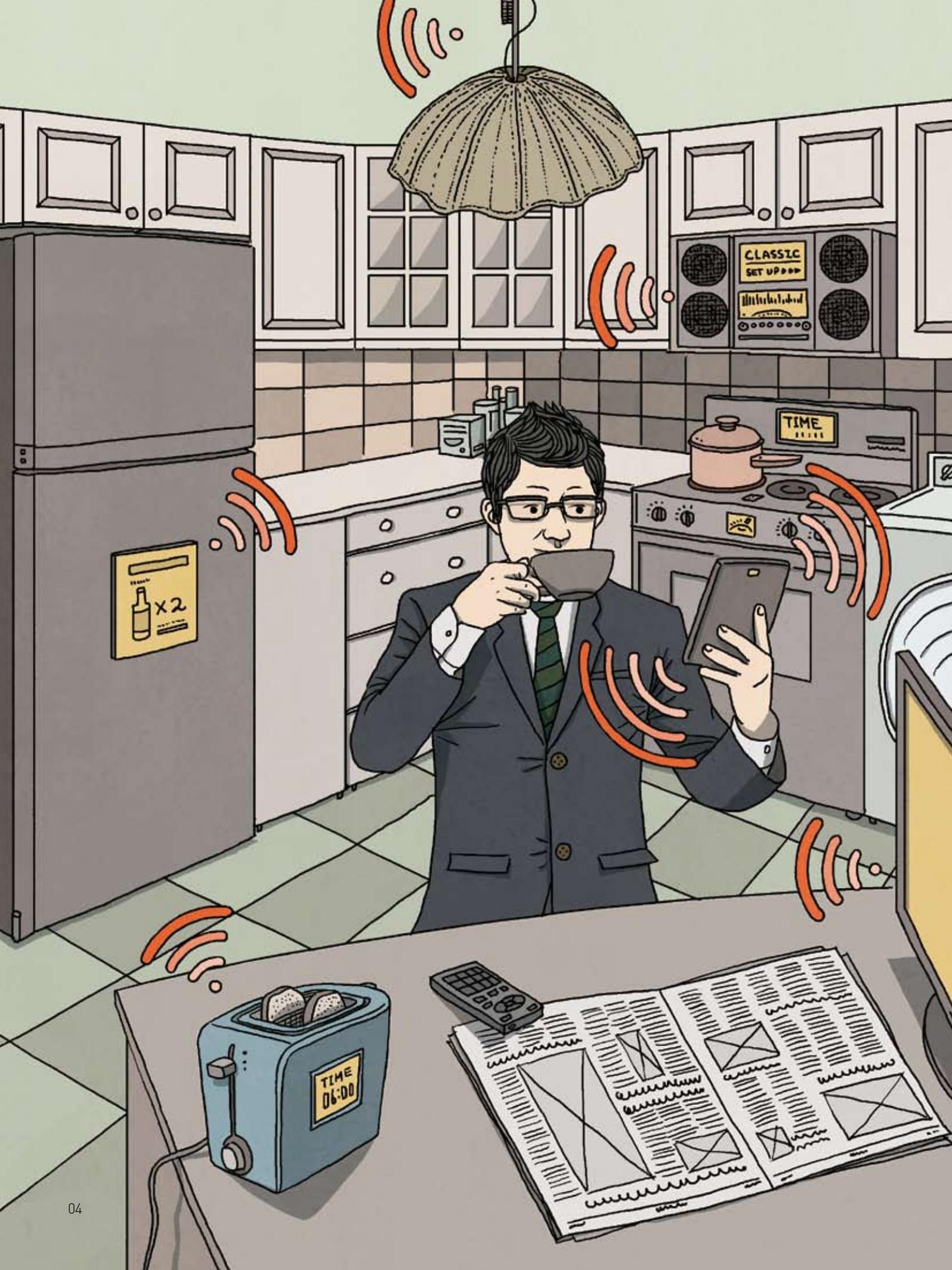
KIPA NEWS

64

REVIEW

66

SENIOR INVENTOR





메가트렌드를 넘어 세기(century)급 메타트렌드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우리 주변의 사물에 통신과 센싱 능력을 부여해 사물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말한다. 자동차를 비롯해 교통, 의료, 제조, 유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센서를 활용한 헬스케어, 스마트 가전, 보안, 웨어러블(착용형) 등 새로운 사업과 시장도 무수히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T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연결 사물 수는 2013년 26억 개에서 2020년 260억 개로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도 2013년 2,0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혁신을 위한 도구로 ‘신에너지’와 함께 ‘사물인터넷’을 선정해 지난 2008년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 2009년 국가 5대 신흥전략 산업으로 삼고 193개 시를 사물인터넷 시범도시로 선정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스마트그린 공장(독)’과 ‘벤처 육성(영)’이라는 각각의 전략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사물인터넷 협력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사물인터넷 혁신센터’와 ‘IoT 글로벌 협의체’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사물인터넷 기업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사회, 환경, 의료, 문화, 경제 등 인간생활을 더 편리하고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농경, 산업화, 인터넷 사회로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대적 시간이 늘어났듯이, 사물인터넷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갖게 된 시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선물할 것이다. 이는 곧 ‘확보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로 이어지게 되며, 사물인터넷을 만드는 시장가치보다도 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 모든 비즈니스가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10년 후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바로 ‘사물인터넷’이 있는 것이다.

시스코 회장인 존 체임버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바일 시대를 지나 사물인터넷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가는 IT기업이라도 20년 후엔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적자생존, 모든 위대함을 만드는 기록의 힘

기억력보다 강한 기록의 힘 ①

찰스 다윈은 22살 때부터 5년 동안 비글호를 여행하며 동식물과 인간에 대해 관찰했다. 그가 진화론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귀국 후 이듬해인 1837년부터다. 갈라파고스 섬에서 가져온 핀치 새의 표본을 조사하다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관찰하고 여기서 '종은 변화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50세 때 '종의 기원'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 계기는 바로 갈라파고스 섬에서의 관찰 기록이었다. 다윈은 이 기초적인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종은 변화한다'는 명제를 유추해냈고, 그 명제를 논증한 진화론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서구의 창조론 세계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글_최효찬 자연경영연구소 소장(비교문학박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록하다 •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메모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와 영감을 메모하는가하면 모든 자료를 메모장에 남겼다. 아이디어를 기록했던 메모장만 3,200권이 남아있다. 메모나 일기의 분량은 무려 500만 장에 이른다. 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연구 결과를 기록했다. 예컨대 수면 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호기심이 생기자 의학저널을 모두 조사했으며 그 결과 '수면 부족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결론을 얻고 이를 메모장에 남겼다. "모든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지나치게 많은 잠을 잔다. 포만감이 들 때까지 식사를 하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이래서는 건강을 해칠 수밖에...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결코 숙면을 취할 수 없다. 그래서 깨어 있는 낮 시간에도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나는 보통 사람의 절반 정도의 수면과 식사만으로 충분하다."(하마다 가즈유키의 '에디슨의 메모'에서) 또한 에디슨은 신문에전문가였다. 그는 항상 정보의 활용방법을 생각

하며 습관적으로 메모를 했다. 신문과 책,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는 메모로 남기는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화사건에 얽힌 보험 분쟁 기사를 보고 불에 강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를 새로운 집짓기 공법으로 연결했다.

메모 혹은 기록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 못지않게 책이나 신문 등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때 읽은 내용 중에서 아이디어가 될 만한 정보는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

습관이 성공을 좌우한다 •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매우 꼼꼼하게 요점정리를 해두는데 비판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분석도 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비 원고를 미리 가지고 있는 셈이어서 출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매우 신속히 원고를 집필할 수 있다."



Record it for Stronger Memory

이는 러시아 곤충학자이자 '시간관리'의 달인으로 회자되는 알렉산드 로비치 류비셰프에 대해 다닐 알렉산드로비치 그라닌이 쓴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셰프'에 나오는 글이다.

류비셰프는 82살까지 살면서 모두 70권의 학술서와 1만 2천여 장에 달하는 논문과 연구 자료를 남겼다. 그는 곤충분류학, 과학사, 농학, 유 전학, 식물학, 철학, 곤충학, 동물학, 진화론, 무신론 등 경계를 넘나들 며 지적 작업을 했다. 류비셰프가 박학다식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책을 읽으면 반드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생산적 독서 방식에 있었다고 한다.

류비셰프는 26살부터 82세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한 일 과를 기록했다. 휴식, 독서, 산책, 딸과의 대화 등에 소비되는 모든 시간을 계산하고 기록했다. 그는 특히 하루마다 자신이 한 일을 기록 하고 각각의 항목마다 걸린 시간을 계산하며 이른바 '시간통계'를 냈 다. 책과 신문을 읽는 시간을 비롯해 친구를 만난 시간, 회의시간, 연 구시간, 딸과의 대화에 할애된 시간 등을 꼼꼼하게 적고 통계를 낸 것

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월 통계를 내고 연말에는 결산을 했다. 나이가 5년마다 묶어 자신이 이루어낸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했다. 필자 역시 오래전부터 책을 읽으면서 표시를 해두었다가 다 읽은 후 노트북에 기억할만한 인용문을 정리해오고 있는데 그게 글쓰 기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생존경쟁은 자연과의 경쟁이나 다른 종과의 것이 아니라 같은 종끼리의 경쟁"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토마 스 흄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것처럼,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무대이지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종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얼굴을 한 종과 경쟁해야 한다.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무기가 바로 '기록하는 습관'일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쓰기 위해 그 이전의 경제학자 199명(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등 인명색인에 올라 있는 사람의 수)의 저작들을 읽고 논평한 수많은 노트들을 만들었다. '자본론'의 위대함 또한 메모에서 나온 것이다. **발명특어**

조직을 혁신하는 '새로운 시각'

기억력보다 강한 기록의 힘 ②

제6기 KIPA 주니어보드(Junior Board)

주니어보드란, 과장급 이하의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회의를 말한다. 즉 직원들 간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해 직원들의 생각과 의식을 공유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상하 직원 간 원활한 소통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도 지난 2010년도에 주니어보드를 출범해 부회장과 청년층 직원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례회의를 마련해오고 있다. 과연 KIPA 주니어 보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를 살살이 파헤쳐보자.

01

JUNIOR BOARD



08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KIPA 주니어보드는 출범 이후 꾸준히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정례회의 및 논의안건의 양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주니어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운영내실화 강화를 위해 애썼다. 즉 정기회의 횟수는 단축하고, 구성원 확대 및 토론 중심의 회의를 실시함으로써 기관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발굴 중심으로 운영한 것이다.

주니어보드 구성원은 혁신에 대한 열정과 업무역량을 기준으로 자발적 지원 및 추천 등으로 선정된다. 올해는 각 팀별로 2명씩 추천받아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 혁신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례회의는 연간 최소 4번 개최되며 참여한 주니어보드에게는 상상마일리지¹⁾가 지급된다. 또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포상(상장, 상금)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니어보드 회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피드백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관련 사업담당자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주니어보드 활동에 따른 각종 콘텐츠(회의결과, 아이디어, 교육자료 등)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에도 공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뤘던 안건들로는 '임직원간 소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업무추진 저해요인 모색 및 해결방안' 등이 있다.

'일가양득'을 위한 출퇴근 혁명 올까? • 지난 9월 22일, 6기 주니어보드의 3차 정례회의가 19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임원진 및 주니어보드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안건은 우리회에서 운영 중인 탄력근무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의견 수렴이었다.

회의는 창의인재육성부 이태원 과장대리, 총무부 윤용일 과장대리, 기획부 송재우 계장, 이명희 계장, 지식재산부 황혜진 계장, 평생교육부 설경범 계장, 지식재산인력양성부 이무청 계장, 창의인재육성부 김수진 주임, 발명영재연구부 김세원 주임, 지식재산부 박준영 주임, 국제사업부 박희승 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60분 동안 진행됐다.

01 회의 당일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제6기 주니어보드 멤버로는 지역지식재산부 지방석 계장,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구분원 계장, 지식재산진흥부 서주현 계장, 평생교육부 이은총 주임,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임진과 주임, 총무부 김경희 주임이 있다.
02 안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아낌없는 조언을 하는 조은영 부회장



주니어보드(Junior Board)
주요 논의안건

- 경영효율화 향상**
 - 인사제도, 업무환경 및 사원복지 개선방안
 - 업무추진 저해요인 모색 및 해결방안
 - 각종 사업추진시 행정처리 절차의 적정성
- 조직역량강화**
 - 상상마일리지제도 및 주니어보드 활성화 방안
- 신규사업발굴**
 -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안
- 기관이미지제고**
 - 우리기관이 타기관에 모범이 되는 실천방안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 지식재산정책**
 - 지식재산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발전 및 향후 추진 방안
- 기타**
 - 상기 주요외제 외에 회사 경영을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한 의제



유연근무제도란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 등 육아 및 가사노동을 직장 일과 병행해 수행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탄력적 근무 형태를 말한다.



주요 의견

이명희 계장 유연근무제도란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 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 등 육아 및 가사노동을 직장 일과 병행해 수행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탄력적 근무 형태를 말한다.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우리회에 맞는,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회는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적합할 듯하다.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한다.

송재우 계장 사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우리회 직원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입장이 아니라 부서원들을 대표해서 나온 자리인 만큼 그들의 입장까지도 생각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은영 부회장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실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특허청 심사관들이다. 그 이유가 업무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업무결과를 점수화 시켜서 진행했기 때문에 모두 그 역할을 충실히 임했다는 데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회 일이 유연근무제를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지, 업무가 가장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특허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모든 부서가 가능한지 등을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

이태원 과장대리 우리 업무가 다른 기관이나 기업 등 외부 파트너와 긴밀한 업무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허청과의 관계가 그러한데, 어떤 파트너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도 유연근무제도 적용 가능여부나 방법적인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김수진 주임 본인의 업무량과 업무 성격에 따른 시차출퇴근제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야근을 많이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장거리 출장이 잡혀 있어 다음날 정시 퇴근이 힘들다면, 이럴 때를 고려해서 미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끔 사전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김세원 주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일반화됐고 유연근무제도란 말도 낯설지만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이를 적용하려고 보면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특히 지금은 제도는 살아있는데 쓸 수 없는 분위기랄까. 가장 먼저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 같다.

박희승 주임 어떤 부서는 해외 국가들과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시차가 안 맞아서 오후 늦게 서야 연락이 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일처리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시차근무제도는 이런 부서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무청 계장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연근무가 가능한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가능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의 구분이 필요할 듯하다.

설경범 계장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부서 간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먼저인 것 같다. 부서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업무냐에 따라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

도 있는데, 이 또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감 형성이 중요할 것 같다.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부장은 부서원들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부서원들은 그 믿음만큼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줘야 할 것이다.

황혜진 계장 제 생각도 그렇다. 오히려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윤용일 과장대리 유연근무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랄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소심함,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업무차별 등 부서 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퍼포먼스라든지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통제 권한도 분명 필요하다고 본다.

조은영 부회장 모든 직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주니어보드의 역할이다. 오늘 회의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고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발명특이

기록의 방식, 기억의 현장

기억력보다 강한 기록의 힘 ❶

전각의 새로운 예술, '새김아트' 창시한 정고암 전각예술가

이것은 기록의 싸움이다. 한 개인의 역사가, 혹은 너와 나의 역사가,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역사를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기록이다. 선대의 역사가 후대에 어떻게 '기억' 되는가는 중요하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록'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인류가 생겨난 후부터 우리 선조는 부단히도 돌과 나무에 자신의 생각을 '새겼'던 것일까. 여기, 과거와 또 다른 모습으로 현재를 새기는 한 남자가 있다. 어제 밤샘 작업을 했다며 피곤이 역력한 기색으로 눈을 깜빡거리던 예술가. 새김아트를 창시한 정고암 선생을 만났다.

전각과 다른 길, 새김아트를 만들다 • “전각의 본질은 글씨와 그림, 그리고 조각이 합일된 동양의 순수예술입니다. 결국 창작을 기본으로 하죠. 지적인 호기심과 체력의 우직함, 감성의 유연성이 모두 필요해요. 하지만 새김아트는 전각이 아니에요. 제가 창시한 새로운 장르의 예술이죠.”

새김아트. 언뜻 듣기에는 하나의 예술장르라기보다 한 예술가의 고유 브랜드처럼 보인다.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둘 다 맞는 셈이다. 정고암 전각예술가가 만든 '새김아트'는 하나의 예술장르이면서 동시에 한 예술가의 독자적인 브랜드다.

'방촌의 세계'로도 불리는 전각은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작은 평면에 글씨와 그림, 조각 등 3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춘추전국시대 관인(官人)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처럼 중국에서 시작된 전각이 우리나라에까지 건너와 현재까지 도장과 직인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고암 선생은 기존 전각에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도장은 꼭 밑바닥에만 새겨야 하는 것인지, 크기도 자유롭게 만들어 온전한 예술로 승화할 수는 없는지 고민했다.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열망과 호기심이 한 데 합쳐져 새로운 형태의 '새김'이 만들어졌다. 지금의 새김아트다.

디지털 시대의 전각, 그 기록이 갖는 의미 • “전각을 이루는 기술은 자법(子法)과 장법(章法), 그리고 도법(刀法)입니다. 자법(子法)은 글씨의 법칙을 아는 것이고 장법(章法)은 공간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아는 것, 도법(刀法)은 칼이나 끌을 운전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 중 가장 쉬운 기술은 도법입니다. 도구를 다루는 방법은 연습만 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이 자법이죠. 요즘에는 자료가 풍부하니까 글씨를 쓰는 법칙도 배울 수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장법이예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술이 태어나는 거죠.”

정고암 선생은 자신의 작업과 관련해 '부단히 기록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했다. 작가들이 글과 문장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종이 위에 나열한다면, 그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글자를 조합해 자신의 철학을 전방위적 예술로 나타낸다.

01. 02 정고암 선생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1992), 대한민국서예대전 우수상(1992), 동야미술제 특선(1993)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서예대전, 서울서예대전 등의 초대작가, 여러 공모전의 심사위원, 단원미술제 운영위원 역임 등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작품으로는 KBS 대하드라마 '왕과 비', 영화 '媿-노는 계집 창' '오세암', MBC 베이징 올림픽 타이틀, 정민 교수의 '미쳐야 미친다' 책 표지 등이 있다.



01



02



03

“기록은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물성에 새기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 저는 새김아트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하고 싶어요. 가슴 속에 새겨진 철학들을 물성에 나타내길 원하죠. 저는 저의 사상을 기록합니다. 사실 ‘새김아트’를 접하는 분들은 화려한 색상에 드러난 아름다운 조형물,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이 정신이 제 작품의 기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꿈이고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면, 저는 여기에 공과 색을 구분 짓는 경계까지 포함시켜 총 삼분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답변이다. 그는 인터뷰 도중 테이블에 새겨진 자신의 작품을 가리키며 색이 칠해진 부분과 색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 둘을 나누는 경계를 손으로 가리킨다. 무엇이 보이냐고 묻는다. 모르겠다는 대답을 내뱉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찬찬히 설명하기 시작한다.

“색이 칠해진 부분만 보셨죠?(웃음) 실(實)만 보고 허(虛)는 못 본 거예요. 유(有)만 보고, 무(無)는 안중에 두지 않은 거죠. ‘무’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 말이죠. 사유하지 않으면 실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한글을 개념예술화 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자음 ‘ㅅ’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망에 대해 허를 찌른 발상이죠.”



04

지식재산권, 창조의 영혼을 보호하는 장치 • 그는 자신의 ‘새김아트’를 설명하면서 “기존 전각에서 완전히 탈피한 방식이지만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전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을 현대화한 새로운 예술”이라고 이야기 했다.

“제 창조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대답은 늘 같죠. 고전입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이죠. 저는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유의 범위를 확대시켜 준 것은 고전과 책임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기록이 제 작업의 범위를 확장해 줬고, 지금은 그 고전을 역추적하면서 저만의 예술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결국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것인가. 그 답을 얻어야만 해요. 저는 저의 역사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어요. 역사를 알 수 있는 길은 결국 ‘기록’일 것이구요. 제 작품이 후대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암의 철학을 전하는 매개요.” 결국 후대에게 더욱 선명히 기억될 수 있도록 그는 남과 다른 방식의 기록을 택한 것이었다. 화려한 오방색을 덧입히고, 글자의 모양을 달리해 한글의 새로운 얼굴을 찾고자 노력하는 정고암 선생. 새김아트와 창조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그는 창조의 동기를 북돋워주는 지식재산권으로 화두를 옮겼다.

“최근 전각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해외시장까지 눈여겨보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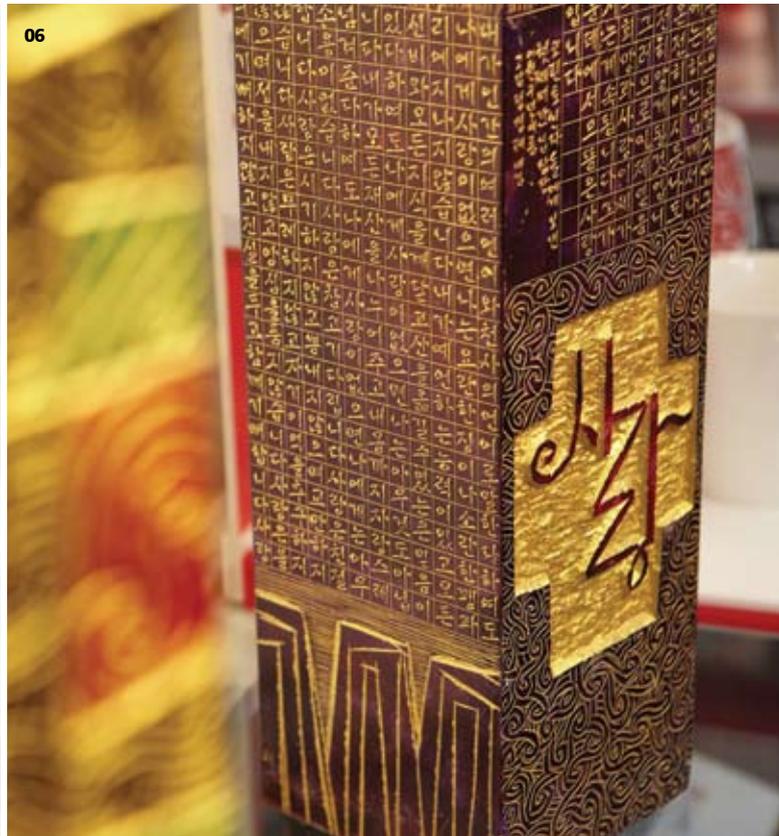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중국과 일본에서 보일 태도입니다. 전각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장의 역할 정도로 국한 되지만, 사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예술 장르로 높이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들이 제가 창시한 '새김아트'를 전각의 부류 중 하나라고 외치며 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왜곡하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느 곳에서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 작업은 전각이 아니라 새김아트라고요. 새김아트를 통해서도 관객과 소통도 가능해요. 깊은 수면 아래의 대화니까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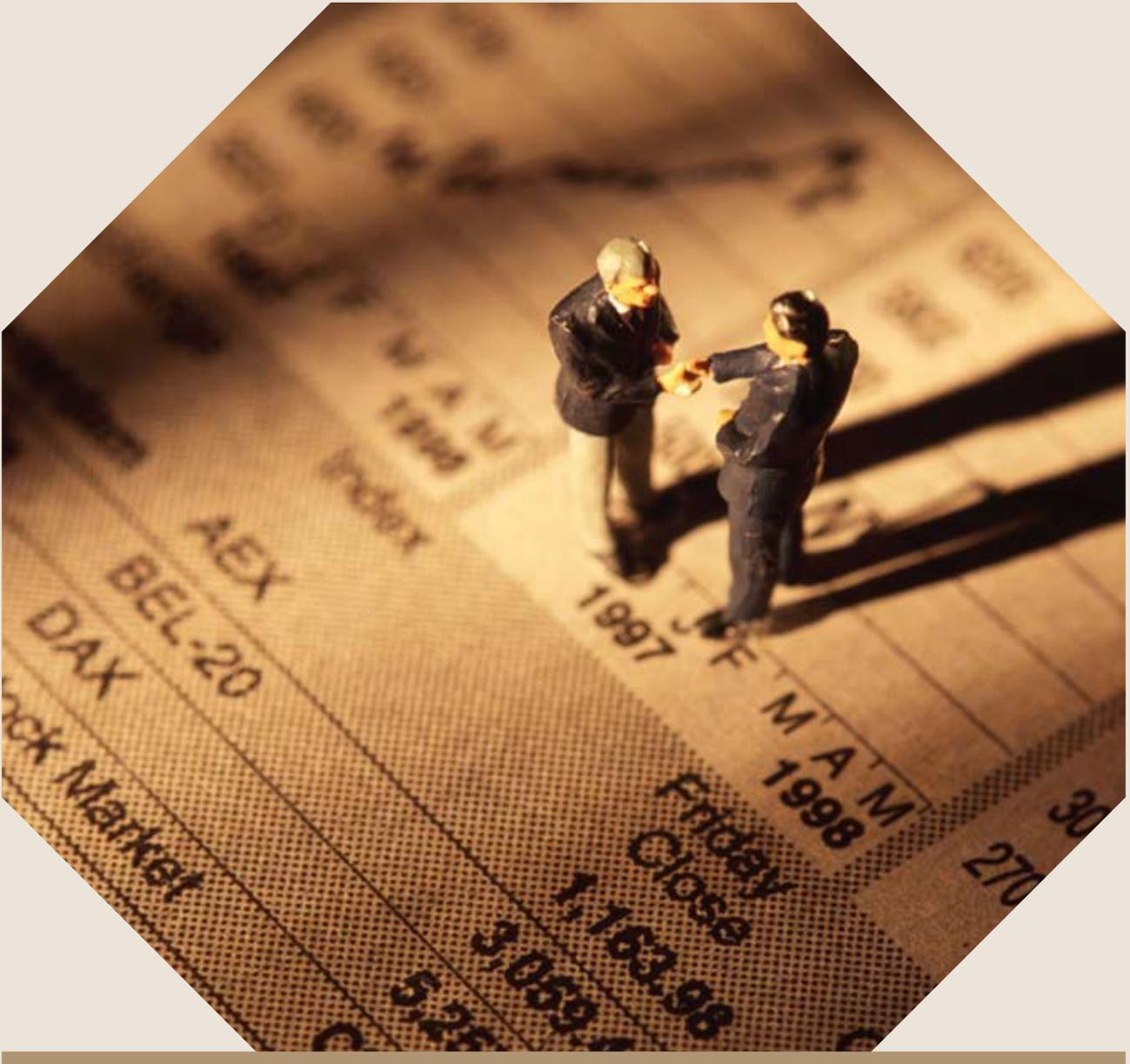
앞으로 무대미술 방면으로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는 그는 “나도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며 털털하게 웃어보였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는데, 그러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더 이상 혼자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초창기엔 외롭기도 많이 외로웠고요.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정고암 선생은 오는 10월 터키를 시작으로 유럽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김아트를 세계에 널리 알려 동양에서 새기는 기록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었다. **발명특허**



03. 04 그의 작품 특징은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들을 포함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 문자와 회화 등의 기법이라는 새로운 전각예술의 장르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05** 그는 '새기다'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마음에 새기다'. '글씨를 새기다'처럼 물질과 정신을 포용하고 범주가 없다는 것. 자신이 하는 일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했다. **06** "한글은 기하학적이고 완벽한 글자로 한자의 상형성과는 많이 달라요. 우주 질서의 부호 같은 느낌이 강하지요. 그러면서도 미니멀 하고 모던한 느낌이 있어 디자인으로서의 한글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IP FOCUS 01

퍼블리시티권, 한류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

최근 국내 법원에서 종전과 달리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이상 독점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작년 코트라는 '유럽 한류와 국가 브랜드 조사'를 통해 한-유럽연합 FTA는 3,921억 원의 효과를 유발한 반면 한류는 유럽에서 6,656억 원의 효과를 유발했다고 발표했으며,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ICT 분야와 한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한류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우리 스스로 내부적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 •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1953년 미연방 제2항소 법원이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사건에서 프라이버시권과 별개로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도 자신의 초상을 통한 광고의 수익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최초로 판단해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 또는 판례로 인정해오고 있다.

일본은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한 성문법은 없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독립한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위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오로지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격권의 한 내용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법상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표현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위 ‘경주마 사건’에서는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적 요소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법령상 근거 없이 불법행위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저작권과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KUG) 제22조 이하에서 초상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성명은 독일 민법 제12조의 성명권에 의해 보호되나, 초상, 성명 이외의 개인의 자기동일성 요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독일 판례는 각 사안에 따라 개개인의 상업적 가치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보호해 왔다. 일반적 인격권은 독일 기본법 제1조 및 제2조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간주해오다가 연방대법원이 일반적 인격권을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 불법행위법 일반규정의 기타 권리에 포섭되는 것으로 승인했다. 개인의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이용 권리에 대한 침해는 일반적 인격권 위반이 될 경우 불법행위로 포섭되어 보호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양도,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나, 이용허락이라는 개념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3년 7월 영국대법원은 세계적인 팝스타 리한나가 영국 의류 브랜드 탑샵이 허락 없이 리한나의 사진이미지를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 “허가 없이 리한나 이미지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하는 것은 사칭(passing off)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명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판단해 최초로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대립 • 우리나라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판례는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다. 이는 위 선수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그 선수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다'라고 인정한 판결 및 그와 유사한 판례들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 및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반대하는 입장의 판례들이 현재 대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 보아, 소녀시대 등 톱스타 55명이 포털사이트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온라인 쇼핑몰 광고 등을 방조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소송에 대해 2014년 7월 24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효진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한 미용실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도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판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또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해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에 포함시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거나 아니면 퍼블리시티권을 명문 규정으로 입법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혼돈과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법률체계 하에서도 굳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독립된 재산권을 인정해달라고만 청구하는 것보다는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를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법리'나 2014년 1월 31일 새로 도입,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일반 부정경쟁행위 유형인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섭하여 청구한다면 연예인들의 초상 등에 대한 상업적 이용 권리를 사안 별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의 제정이나 대법원 판례 선고 전까지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으려는 노력을 퍼블리시



티권 주장과 함께 해 볼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 위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보호하지 않고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에 포섭해 인정하거나,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섭해 보호한다면 결국 법원에 의해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해당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 받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권리 보유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를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과도기적인 해결책으로만 의의가 있다. 한류로 인한 해외에서의 국가 및 한국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한류 스타의 초상 등을 활용한 각종 상품화권 사업, 광고 및 콘텐츠 문화 산업의 시장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류 스타의 본국인 우리나라에서조차 한류 스타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외 시장에서의 한류 관련 사업에서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거나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ICT 기술과 융합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타 캐릭터나 이미지를 독특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이용하는 방법 발명, 홀로그램 기법을 통한 스타 이미지의 드라마, 콘서트 영화에서의 출연 방법 관련 기술, 한류 드라마 방송 화면에서 클릭을 통해 바로 해당 스타가 착용한 액세서리와 의류를 쇼핑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발명 등처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이 있는 기술 방법과 발명을 할 경우 처럼 ICT 기술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와 이용 조건 등을 규율할 구체적이고 조화로운 입법이 시급하다.

또한 창조적 벤처사업가들이 게임,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 ICT 분야에서 한류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기술과 발명 등 사업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때, 퍼블리시티권이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도록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조건 등에 관해 독립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보호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해 스타, 기획사, 소비자, 사업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세계 최초의 독립적 법률 제정으로 한류 및 창조경제의 성공에 퍼블리시티권과 ICT 기술이 융합해 이바지할 수 있는 때가 조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발명특허**





IP FOCUS 02

특허품과 독점규제의 관계에 관한 고찰



흔히 특허품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산업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경쟁자들이 모여서 상호협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내재적인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허품과 독점규제의 관계를 살펴본 후, 어떻게 하면 특허품이 기술개발 촉진 등과 같은 본연의 목적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허풀(Patent Pools)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해 상호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라이선싱해주는 상호간의 협정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특허풀은 성숙된 기술분야에서 나타나지만, 아직 기술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여러 기업들이 상호 호환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산업분야의 표준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¹⁾

특허풀이 어떠한 경우에 독점규제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특허를 4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특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완특허 및 대체특허로 구분을 할 수 있고, 표준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필수특허와 비필수특허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특허 및 보완특허 • 대체특허란, 비차단특허(non-blocking patent)이면서 대안 기술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대체특허는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특허와 병행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질상 다른 대체특허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완특허는 다른 특허와 같이 사용되어야지만 구체적인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완특허는 그 성질상 다른 보완특허에 대한 대체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서로 상대방을 또는 한쪽만을 차단하는 특허는 보완특허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특허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서로 또는 한쪽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차단하는 특허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술이 축적되면서 혁신이 일어나는 기술분야의 경우 다른 회사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서는 기술혁신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분야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허 라이선싱 협약이 매우 중요해진다.

대체특허는 그 성질상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독점규제 측면에서 바라보면 대체특허로 특허풀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완특허로 특허풀이 형성되는 것은 독점규제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기술 간의 경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완특허로 특허풀이 형성되는 것은 기술거래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독점규제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

필수특허 및 비필수특허 • 필수특허란 표준화 상황에서 기술 표준에 따르기 위해서 필수적인 특허를 말하고, 필수표준특허라는 성질상 보완특허에 해당한다. 반면 해당기술분야에서 대체할 수 있는 특허인 경우는 비필수특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대체특허 및 보완특허의 구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독점규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필수특허로 이루어진 특허풀은 독점규제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적은 반면에, 비필수특허로 이루어진 특허풀은 독점규제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표준화와 특허풀은 많은 표준이 보완적인 기술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일례로 미국 법무부는 MPEG표준이 독점규제에 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분석기준

- ① 표준에 참여한 특허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라이선싱되거나 라이선싱을 희망하는 측에서 선정한 패키지로 라이선싱이 가능해야 한다.
- ② 표준에 참여한 특허가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소멸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 ③ 표준에 참여한 특허가 기술적으로 필수특허여야 하며, 필수특허인지 여부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특허풀은 한시적인 존속기간을 가져야 한다.
- ⑤ 제시된 기술료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 ⑥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권 허여가 가능해야 한다.
- ⑦ 특허 사용권자에게 대안(alternative) 특허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 ⑧ 특허 사용권자가 라이선싱 기간 동안에 라이선싱된 기술에 대해 개선을 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비차별적인 통상실권(non-exclusive license)을 허여할 수 있어야 한다.²⁾
- ⑨ 특허풀에 참여한 자들은 특허풀의 범위를 벗어나 최종 제품에 대한 가격 공모를해서는 안 된다.

독점규제 관점에서 살펴본 특허풀의 긍정적인 면 · 특허풀의 긍정적인 면은 효율성 증대, 소송비용의 저감 내지 배제, 라이선싱 거래비용의 저감, 차단특허 문제의 해결을 들 수 있다. 보완특허만을 모아 특허풀을 형성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는 생산자에게 라이선싱해주는 경우 가장 효율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더해 특허풀에 참여한 멤버가 자신의 특허를 개별적으로도 제3자에게 라이선싱 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 경우 기술료 금액이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어 특허풀이 더욱더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허풀은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거나 소송이 있더라도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효과는 높은 소송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기업에게 관련 특허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특허풀은 특허풀과 단 하나의 라이선싱 협약만으로 라이선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선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특허권자 모두에게 기술료를 각각 지급하면 도저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인 기술료 축적(royalty stacking)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관련 특허들이 상호 차단하면서 특허침해를 하고 있는 차단특허의 문제 또한 특허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독점규제 관점에서 살펴본 특허풀의 부정적인 면 · 특허풀의 부정적인 면은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들로 특허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쟁관계의 왜곡, 독점규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라이선싱 관행, 개량발명 역 실시 규정의 존재, 공동행위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대체특허로 특허풀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경쟁관계가 소멸된다는 측면에서 독점규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특허풀에 참여한 멤버가 자신의 특허를 개별적으로 제3자에게 라이선싱 해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특허풀의 경우도 특허풀이 제3자에게 적절한 가격 이상의 기술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독점규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허법이 허용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넘어서서 라이선싱 협약이 추가적인 제약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개량발명 역 실시 규정도 독점규제에 저촉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특허풀에 참여한 멤버는 특허풀에 연관된 기술이 개량된 경우 이를 아무런 기술료 없이 다른 특허풀 멤버와 나눠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개량발명 역 실시 규정은 특허풀에 참여해 특허풀에 필수적인 특허가 된 특허를 가진 멤버가 다른 멤버에 대해



특허지체(Patent hold-up)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저감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제40조에는 전용실시권 허여를 요구하는 개량발명 역 실시 조항은 잠재적으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국들은 이러한 행위를 당연위법 또는 합리성 원칙에 의한 검토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물은 근본적으로 경쟁자들 사이에서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공정거래에 반하는 공동행위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 이상으로 특허물이 갖는 독점규제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특허물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를 거칠 것이다.

첫째, 특허물에 참여하고 있는 특허가 보완특허인지 대체특허인지를 살펴야 한다. 문제는 보완특허인지 대체특허인지 구분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상태도 동적으로 계속 변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분야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특허물에 참여하고 있는 특허도 정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필수표준특허의 경우는

그 정의상 보완특허에 해당하므로 필수표준특허가 참여한 특허물은 보통의 경우 독점규제에 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비필수특허가 참여한 특허물은 잠재적인 경쟁촉진효과와 경쟁제한효과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관련되는 라이선싱 협약을 분석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라이선싱 협약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 허여가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FRAND규정과 같이 비차별적이어야 한다.³⁾ 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사용권자는 대안특허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특허물이 특허물 밖에서 공정거래에 반하는 공모행위의 위험성을 증대시키지는 않는지 여부와 특허물 내용에 이러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허물이 산업발전 이바지라는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과도한 경쟁의 제한을 하지 않아 해당 기술분야에서 순조롭게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독점규제 관련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간에 끊임없는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명특허**



각주

- 1) 본고는 WIPO 사무국에서 발간한 다음 보고서의 내용을 주로 참조한 것임. Patent Pools and Antitrust – A Comparative Analysis, March 2014.
- 2) 이와 같이 특허 사용권자(또는 특허물에 참여한 멤버)가 라이선싱 기간 동안에 라이선싱된 기술에 대해 개량을 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개량된 기술을 특허권자(또는 특허물에 참여한 다른 멤버)에게 허여하는 규정을 개량발명 역 실시 (grant-back) 규정이라고 한다.
- 3)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즉 공정, 합리적, 비차별을 뜻하며 제 3자에게 이러한 조건으로 특허를 실시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FRAND 규정을 통하여 자신의 특허가 필수표준특허로 채택되어 보다 더 높은 라이선싱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특허권자의 이익과 FRAND 규정에 부합하는 기술료만을 부담하면 되는 특허 사용권자의 이익 간에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박시영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과장



IP FOCUS 03

구글+모토로라, MS+노키아 삼성+?



얼마 전 거액에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이 단말기 제조부문을 다시 중국의 레노버에 매각하면서 험값 매각 논란, 구글의 매각 의도 등이 한동안 화제였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휴대폰업계의 최강자 노키아를 인수한 MS는 삼성을 상대로 특허 로열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뉴스 역시 한동안 화제가 됐다.



소프트웨어 vs 하드웨어 • 이런 뉴스들을 접하다가 문득 구글과 MS라는 두 회사와 이 두 회사에 각각 인수된 모토로라와 노키아라는 회사의 공통점이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이나 노키아를 인수한 MS는 모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이고, 인수된 기업들인 모토로라와 노키아는 모두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이라는 점이다.

물론 구글이나 MS가 하드웨어를 전혀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구글과 MS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둔 기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MS는 PC의 운영체제를, 구글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니 말이다.

한편, 구글과 MS가 시장에서 그 지위를 크게 잃어버린 모토로라와 노키아를 각각 인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가진 특허들 때문이 아닐까.

특히, 구글이 처음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에 인수했다가 다시 레노버에 29억 1천만 달러에 매각했는데, 그때 모토로라의 특허권은 제외했다.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만 하자면 모토로라가 가진 특허권의 가치가 96억 달러, 약 1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구글이나 MS는 특허들 특히 휴대폰과 관련한 특허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물론 구글과 MS는 모두 다수의 휴대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휴대폰 분야의 특허에서도 강한 회사들이다. 그럼에도 왜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가진 특허가 필요했을까?

물론 사업적 이유와 실제 기술 그리고 각각의 특허 내용 등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필자는 여기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분야에서의 특허가 가진 장단점에서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카테고리는 원칙적으로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뿐이다. 프로그램 발명이나 BM 발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특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 물건과 방법 중 하나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물건과 방법 발명은 침해 판단과 침해의 입증 문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실질적 형상이 있는 물건 발명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고 또한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반대로 방법 발명의 경우 일련의 과정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실질적 형상이 없으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방법 발명의 경우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단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실질적 형상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오히려 물건 발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넓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은 강점과 약점이 서로 다르고,

이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드웨어는 물건 발명, 소프트웨어는 방법 발명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글이나 MS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로서 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들에 역시 강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구글과 MS의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 물건 발명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특허들을 보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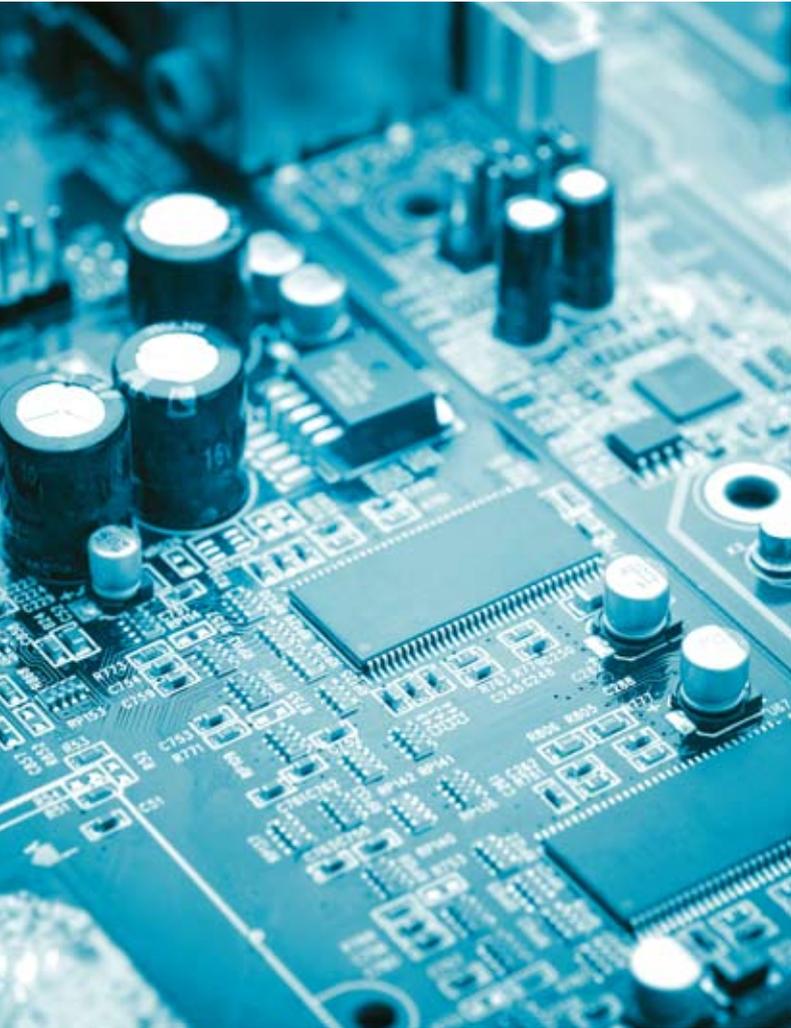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인 구글과 MS는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인 모토로라와 노키아의 인수를 통해 기존에 자신들이 가진 방법 발명뿐만 아니라 물건 발명이라는 카테고리도 강화함으로써 결국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흔히 융합이나 커버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구글과 MS의 모토로라와 노키아의 인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이고 또한 특허적 카테고리로서는 서로 장단점이 다른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을 모두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삼성과 애플은? • 한편, 휴대폰 업계의 강자들인 삼성과 애플은 어떠한가? 먼저 애플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어느 쪽으로 치우친 회사인가? 금방 답하기 어렵고 서로 간에도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점이 바로 애플의 가진 강점이라 생각한다. 즉 이미 애플은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해서, 그리고 MS가 노키아를 인수해 구축하고자 했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모두에서의 권리 확보라는 것을 이미 해 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 하드웨어 자체도 생산·판매하고 있지만 iOS라는 운영체제까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한 특징들은 특허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삼성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어느 쪽으로 치우친 회사인가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대다수는 하드웨어라고 답할 것이며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명의 카테고리로 보자면 삼성은 물건 발명에 강점을 가진 회사이지만 상대적으로 방법 발명에는 약점을 가진 회사인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점이 바로 현재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결국 지금은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지금 주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융합이나 컨버전스가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다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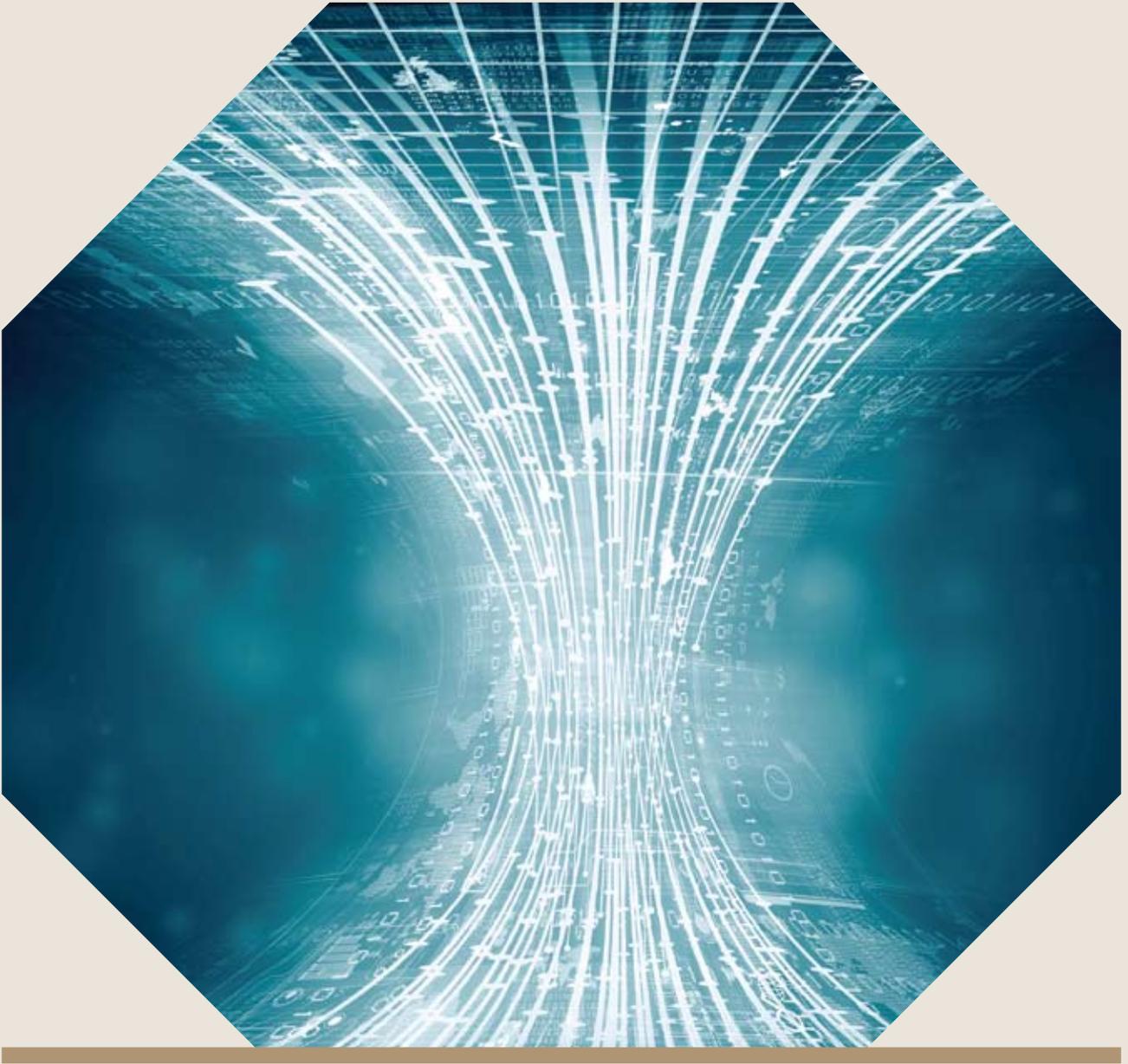
이러한 점은 특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 보다는 모든 발명의 카테고리에서 다양하게 특허를 확보해두는 특허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고, MS가 노키아를 인수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 그리고 특허에서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시작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 그리고 특허에서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권리를 확보해 오고 있는 애플이 있다. 삼성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하드웨어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강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정책에 맞추어 물건 발명뿐만 아니라 방법 발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카테고리에서 강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특허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발명특허**





IP FOCUS 04

세계 빅데이터 특허 출원 동향



최근 글로벌 IT업계에 화두로 떠오르는 용어가 'SMAC'이다. SMAC은 소셜(Social), 모바일(Mobile), 분석(Analytic), 클라우드(Cloud)의 앞 글자들을 딴 말이다. 이 중 분석은 SMAC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이 결합해 만들어진 정보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향한다. 큰 구름과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모인 정보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 '분석'이 필수다. 아무리 많은 정보도 분석을 통해 통찰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저 휘발성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분석을 위한 기술이 '빅데이터'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빅데이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빅데이터 전략 • 빅데이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글로벌 IT기업들과 국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빅데이터에 올인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탄생하기 전부터 구글로 모이는 정보들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연마했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글로벌 IT기업들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 역시 빅데이터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수 년 전부터 빅데이터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IT기업이 몰린 미국은 빅데이터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2년부터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이니셔티브'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시 미국이 밝힌 투입 금액만 2억 달러 이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전략 추진을 위해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 내에 빅데이터 고위 운영 그룹을 구성했다. 이들 주도 아래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90여 개의 정부산하기관,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연구 과제들을 발굴했다. 이 중에서도 미국 정부가 공을 들이는 부분은 공공 부문에 어떻게 빅데이터를 접목할지이다. 지난 3월 오바마 정부는 대량의 기후 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공공 부문 빅데이터 기술 개발과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수립한 '정보통신 기술전략 공정표 개정안'에서 빅데이터를 언급하며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당시 발표한 과학기술혁신 정보통신전략에서 2015년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2조엔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고, 2020년까지 약 10조엔 규모 관련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후 일본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교통,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분석 실증 실험을 진행 중이다. 또 총리 직속 IT전략본부를 주축으로 범 부처간 빅데이터 정책을 조율하고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말 '빅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 분석 및 저장 가능한 인프라와 도구 개발', '접근성과 활용성을 갖춘 풍부한 데이터 확보' 등 세 가지가 핵심 요소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 인프라와 도구 확보를





위해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을 지원하는 'e-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도입에 앞서고 있는 호주 역시 지난해 8월 '공공 서비스 빅데이터 전략'을 발표하고, 호주를 빅데이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들 정부 기관과 함께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역할을 IBM, EMC,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AS 등 유수의 IT기업들이 협력하고 있다. 물론 이들 기업 역시 차세대 먹거리 사업인 빅데이터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 기업을 인수하거나 별도 제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기술, 특허 출원 어디까지 왔나 • 지난 몇 년간 기업과 국가들이 빅데이터 기술 확보에 전력 질주했다면 이젠 이렇게 만든 빅데이터 기술들을 지켜낼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는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기업과 정부 등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 특허 출원은 얼마나 될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4월 발표한 '특허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기술개발 동향' 보고서에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ETRI는 1976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 출원된 특허 총 2,049건을 분석했다. 이 중 50%인 1,030건이 미국에서

나온 특허였다. 한국은 576건으로 28%를 차지했고, 일본(372건, 18%), 유럽(71건, 4%)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빅데이터 기술 특허 출원 활동이 저조했다. 그러다 2005년을 기점으로 급증했고, 최근까지도 특허출원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했고, 미국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빅데이터 특허 출원이 급증해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 2004년을 기점으로 빅데이터 기술 특허 출원 활동이 주춤하다. 유럽은 전 기간에 걸쳐 특허 출원이 미미했는데 최근 들어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세부 기술별로는, 저장기술이 468건(28%)으로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됐다. 실시간 처리기술(306건, 18%), 데이터 분석기술(305건, 17%), 표현기술(251건, 14%), 데이터 수집기술(241건, 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술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저장 기술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표현기술이나 데이터 운영, 관리 등에 관한 특허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데이터 분석과 처리에 관한 특허가 많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IBM,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삼성전자 등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기업들은 이들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율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에는 빅데이터가 주목받기 이전이라 전반적으로 관련 특허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이전보다 더 빈번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다. 이 시기에 IBM,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등과 같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특허 출원 비율이 높아졌다. 이들 기업 외에도 IT 대형기업 위주로 빅데이터 특허 출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빅데이터 연구개발(R&D)이 활발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대, 특허 출원 대비해야 • 앞서 살펴봤듯 빅데이터 관련 특허 출원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기 때문이다.

IBM은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의 90%가 최근 2년 사이에 생성됐다고 했다. 또 매일 전 세계적으로 약 24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만들어진다고 예측했다. 이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처리하는 지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이제 빅데이터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지가 관건이다. 이 중 기술 확보는 가장 기본이자 밑거름이 되는 분야다. 각 국가와 기업들이 R&D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술 없는 빅데이터 육성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이미 기술 확보와 이를 지켜낼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ETRI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빅데이터 특허 중 절반가량이 미국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현 정부 들어 빅데이터에 많은 자원과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들이 빅데이터 기술 확보에 고군분투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은 특허 출원과 같은 기본이자 중요한 절차를 쉽게 놓칠 수 있다. 정부와 기관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특허 문제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이다. **발명특허**



‘소통·협력·혁신’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



기획부

조직 내에서 기획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글썽 그 조직의 성공 여부는 장담하기 힘들지 않을까.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기획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더 큰 조직을 위해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면,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최초 방향성 설정이다.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이해하고 왜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게 됐는지 그 당위성이 기획부 스스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후 프로세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부는 지식재산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외부 환경을 항상 예의주시 하고 있다. 기관이 성장동력을 갖추고 지속 경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더 큰 조직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힘을 모으고 있다.

기획부는 '평가, 기획, 정보' 총 세 파트로 나뉜다.

평가파트는 내부 직원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특허청으로부터 기관 경영평가, 감사, 국회 등 대정부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형 과장, 원희재 계장, 박경호 주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파트는 공공기관 유형지정, 예산관리, 정원증원,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기재부), 주니어보드,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유정호 과장대리, 이명희 계장, 고아라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파트는 지식재산 사업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에게 온라인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사업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중복지원 방지 및 전주기적 사업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화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정보파트는 송재우 계장, 신수광 주임, 권용준 주임, 손재희 사원, 신민경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부의 새로운 수장인 김운선 부장은 "한국발명진흥회를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기획에 돌입했으며,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성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What)'은 현장에서, '어떻게(How)'는 책상 앞에서 · 기획부는 실제 현장에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현장의 접점 인력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무엇'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만들어진 '어떻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원희재 계장은 “기획부서는 타 사업부서와 달리 외부 고객(특허청, 기재부, 국회 등)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성과평가, 내부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내부 직원 대상 서비스 만족도가 높지는 않으나, 기획부서원의 온화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만족도가 점차 오르고 있는 추세다”고 전했다.

그렇게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지난해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청 산하 정보보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버 가상화 기술 도입으로 물리서버 20여 대를 3대로 축소·전환하여 전산실 운영 비용절감 및 관리효율성 개선, 약 29종의 중소규모 전산인프라 유지관리 계약을 통합·발주해 계약업무 간소화 등 발주 비용 절감 및 통합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20여 개 사업이 탑재된 사업관리시스템의 민원처리 무중단 서비스 구현을 위한 웹서버 이중화, 응용서버 4중화 등 안정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작년부터 새롭게 개편한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의 내부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기존 대비 97.78%의 응답자가 만족을 나타

냈으며, 개편 종합만족도 점수도 87점을 받으며 한국발명진흥회를 대표하는 전문 매거진으로 거듭났다.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올해 기획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올해부터 내후년인 2016년 1월까지 경영정보시스템 도입, 업무 처리 방식 혁신을 위한 수작업 기반의 회계, 구매, 계약, 인사 등 총무 업무의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전산화로 업무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부 직원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특허청으로부터 기관 경영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대비 높은 홍보 효과 창출 여부와 네거티브적 외부 언론의 선별 및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기획부는 모든 부서의 대변인이기도 하다 • 기획부 부원으로서 겸비해야 할 기본 소양은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력과 전반적인 업무의 이해도일 것이다. 숲만 봐서도, 나무만 봐서도 안 된다. 숲과 나무를 두루 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애사심과 성실함,



끈기만 있다면 최고의 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획부는 모든 부서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지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살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이 지시한 사항이 전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신수광 주임은 “전산파트의 일원으로 IT분야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관련 세미나와 교육에 참여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획부원 중에는 학원에 다니는 등 꾸준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에 애쓰고 있다.

고아라 사원은 “다원화되는 미디어 경쟁구도 속에서 ‘지식재산’이라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하고, PR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해 기관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또한 언론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Key Message 개발과 위기관리 대응능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부는 올 한해 국정감사, 이사회, 기관 성과평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에 걸맞은 MIS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아울러 홍보매체의 다각화를 통한 홍보전략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성과중심의 홍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운선 부장은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성실과 열정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유대감을 가지는 것이 부원들을 성공으로 이끌 것임을 확신했다. 그의 자신감에 찬 미소가 부원들의 사기도 끌어올리는 것 같았다.

“조직이 개편된 만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서로 응원하며 기운을 북돋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부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IP 최고기관이 되기를 꿈꾸는 이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발명특어**

“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현장의 점점 인력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만들어진
‘어떻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지식재산만이 살길... 제주의 가치를 올리다

Interviewee. 제주지식재산센터 오용석 센터장, 강순정 특허컨설턴트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재산을 비롯한 기업이 소유한 무형자산이 오늘날 기업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제주도내 소재 기업 및 개인들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지식재산센터를 소개합니다.



Q 제주지식재산센터(이하 제주센터)에 대해 간단한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용석 : 제주센터는 제주지역의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특허청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특허, 디자인, 브랜드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 지식재산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순정 : 저희 센터는 오용석 센터장님, 그리고 저와 김석훈 특허 컨설턴트, 현장현 브랜드컨설턴트, 강태훈, 김희정 지식컨설턴트, 김선혜 디자인컨설턴트 모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고 있죠.

Q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제주지역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용석 : 제주는 지난 2012년도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799건에서 2013년도에는 1,452건으로 전년대비 81.7%의 증가했습니다.

특히 277건에서 322건, 실용신안 14건에서 15건, 디자인권 93건에서 135건, 상표권 415건에서 980건으로 지역 특성상 관광분야가 많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률이 제일 높죠.

물론 제주센터가 등록율 증가에 많은 부분을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대한 교육과 상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제주센터가 지원한 국내 출원비용지원사업은 출원건에 90% 이상의 등록률을 보이는 등 직접적인 성과와 컨설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순정 : 특히 제주지역은 영세기업 수가 많은 편이에요. 가족단위인 경우가 많고, 보유기술 또한 권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유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기술들이 권리가 되지 않고 있어 분쟁소지 등 권리 행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방문상담, 전화상담,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권리와 제품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대학, 국가 산하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도움을 받으며 기술 발전을 진행시키고 이를 권리화 하는데 센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01



02



03

01 IP경영인클럽 02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03 지식재산권 일반 교육

Q 제주지역에 있는 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는지요.

오용석 : 물론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과학기술단지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 주요 유관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대학교와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아이템, 기술거래장터, 기술사업화 공모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죠. 또한 작년에는 광주지식재산센터와 제주지역 IP경영인클럽 회원 간 교류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타 지역 CEO와 간담회를 통해 이업종 간의 경영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고 제주지역 중소기업체를 방문해 격려의 자리도 마련하여 관광인프라와 지식재산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Q 제주센터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특허 무료 변리상담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강순정 : 무료 변리상담 서비스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와 협의하여 매달 둘째 주에 1회씩 공익변리사가 제주센터에 직접 방문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특허출원이나 분쟁상담 등 지적권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가나, 예비창업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처음

접하거나 지적권 상담을 받기 어려운 개인이 많이 방문하죠. 제주도 내에는 변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료 변리상담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시간적·지리적 한계를 허물어 주는 역할을 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가 곤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은 공익변리사 파견이 연간 8회로, 공백 기간(4회)동안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센터 자체적으로 제주출신 변리사들의 도움을 받아 능기부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제주센터의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오용석 :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전에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Needs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내용으로는 지식재산권 기초, 중소기업을 위한 상표제도, 분쟁사례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강사 Pool을 통해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교육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제주센터는 '무료 변리 상담서비스',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외에도 지역 영세 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나눔 문화를 전파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제주지식재산센터 전화 : 1661-1900 / 팩스 : 064-758-2169

Q 올해 5월 21일부터 수행하고 있는 'IP Scale-Up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강순정 : 지난 2013년까지 기능별 지원프로그램인 IP스타기업 육성지원, 특허종합지원, 브랜드 가치 제고, 디자인 가치제고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2014년부터 기업의 수준에 따른 IP Start-Up → IP Scale-Up → IP Star의 성장모델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개편했습니다.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마지막 단계인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IP대표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IP Scale-Up 지원 프로그램의 해당 기업 기준은 최근 3개년(2011년~2013년)동안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혹은 등록 1건 이상 보유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올 한해 작년과 차별화된 부분 또는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오용석 : IP스타기업 육성과 향토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농수축산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토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브랜드를 갖춰 기업역량이 강화되도록 포트폴리오 형태로 지원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이용한 특허기술, 제품에 대한 브랜드, 훌륭한 디자인이 뒷받침된다

면 기업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희 센터는 기업별 시급한 분야를 먼저 컨설팅을 마친 이후에 기업수준에 맞게 적절한 지원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지역 향토기업인 한라산 소주업체는 브랜드와 디자인을 융합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용석 : 제주센터는 지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도내에서 유일하게 개인발명가나 사업자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리감 없이 편안하게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발전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내도 가능합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관광차 한번쯤 방문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간담회 장소로 제주센터가 발명인들을 초대하고 IP경영인클럽 모임 활성화를 통해 상호 교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타 지역과의 교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거점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 간 지식재산권 격차도 해소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센터원 모두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발명특허**

극사실의 맛을 찾아서



최고의 맛은 어떤 맛일까?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많이 먹는 것일지, 아니면 미식과 와인에 각각 정통했던 루이 15세와 루이 16세처럼 적당하게 맛있게 먹는 것일지 궁금하다. 중세 왕과 귀족들이 즐기던 미식이 대중화 되면서 현대는 일반인들도 다양한 맛을 즐기는 시대가 됐다. 더욱이 맛을 변형하는 물질과 기술의 출현으로 미각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즐거운 상상이 시작되고 있다.

글_ 김성진 Master,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학박사





맛의 유혹, 미각 • 맛은 혀의 표면에 있는 미뢰(味蕾)의 미각신경이 화학적인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감각이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맛을 후각에서 느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커피나 와인을 맛볼 때도 코를 막고 마시면 그 맛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 70~80%의 맛을 후각이 담당한다고 하니 말만 미각이지 코의 기여가 더 크다.

사실 미각의 역할은 맛 말고도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맛을 통한 음식의 상태 감지이다. 쓴맛은 독을 감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반면 단맛은 당분을 감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여성이 단맛에는 덜 민감하고 쓴맛에는 더 민감하다고 한다. 이유는 태아를 위한 배려라고 추측하고 있다. 어른들은 독성에 견디는 능력이 있지만, 태아는 민감하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을 할 여성은 독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최고의 맛은 절대적이 아니란 말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맛을 좋아한다. 최근에 와서는 빨간색에 의한 매운맛에 만족하지 못하고 흰 국물을 통한 매운맛마저 즐기려 한다. 그렇다면 서양 사람들은 왜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사실 서양도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매운맛을 즐겼다. 그들은 근대 초기 까지도 후추를 통한 매운맛을 좋아했는데, 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 후추가 대량으로 수입되자 매운맛에 대한 가치가 점점 낮아지게 됐다. 그런 와중에 북유럽을 통해 귀한 버터가 유입되자 귀족의 입맛은 부드러운 맛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맛의 취향은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져 왔다.

디지털 미각 시대 • 현대에 와서는 화학적으로 맛을 증폭시키는 기술도 진행되고 있다. 당분은 비만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게 먹고도 강한 맛을 느끼게 된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과당 옥수수시럽'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맛을 증폭하는 인공감미료는 일반적인 과당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세노믹스는 맛을 증폭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맛을 변형하는

기술을 지식재산화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미각 변형 물질인 미라쿨린은 신맛을 단맛으로 바꿔준다. 파티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사용되는데 한 번 먹게 되면 1시간 정도는 신맛이 단맛으로 느껴진다. 당분을 통해 비만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마음껏 단맛을 즐겨도 결국 당분이 없는 음식을 먹고 있기에 비만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다. 신맛은 음식이 상했는지를 감지하는 맛의 감각으로 원래는 당분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세노믹스를 비롯한 대학이나 기업의 식품 연구팀들은 네슬레, 아지노모토, 그리고 콜라 업체 등과 제휴를 맺으며 미각 변형을 통한 풍미 물질에 대해 계속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최고의 맛을 결정하는 데는 이제 맛의 증폭과 변형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디지털 미각봉이라는 전자 장치를 통해 혀에 인공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라나싱어 박사팀은 혀에 전자 장치를 가져다 뒹으로써 열과 전기를 통해 미각 세포를 자극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각 수용체인 미뢰가 미각봉의 신호에 반응하게 되면 그 느낌을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해 마치 실제 음식에서 느끼는 맛을 감지하게 된다.

국내 작가 윤병락의 하이퍼리얼리즘, 즉 극사실로 그린 상자의 사과 그림을 보면 금방이라도 침이 흐른다. 요즘 한국인들의 입맛을 달구고 있는 체리를 그린 로베르토 베르나르의 그림도 마찬가지다. 극사실 방식의 그림을 통해 사실보다도 더 맛있게 보이도록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뛰어넘는 그림 속의 과일에 라나싱어 박사팀의 인공 미각 기술이 적용된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극사실의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박사는 시고, 달고, 쓴맛은 미각봉에 흘리는 전류의 세기나 주파수로 느끼게 할 수 있고 맵고 달콤한 맛은 열 자극을 통해 느끼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라져온 최고의 맛이 이제 기술을 통해 실재를 뛰어넘는 극사실의 맛을 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만약 그 시대에 프랑스 루이 14세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아도 탐식의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발명특허**

임플란트 맞춤형 시대를 선도하다



라파바이오(주)

커스터마이즈(Customize) 마케팅의 시대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인에 맞춰 물건이 만들어지는 이 때, 아마 '맞춤형' 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곳은 아마도 의료 분야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믿기 어렵게도, 지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똑같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했다. 개개인의 치아 그리고 잇몸의 모양에 관계없이 같은 임플란트를 '처방' 받았던 것이다. 김정한 라파바이오 대표는 이러한 현상에 의문을 품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개개인에 맞는 임플란트, '마이(my) 플란트'의 시대를 열 수는 없을까 하고.

01



02



대기업 총수 자제의 프리미엄을 벗고 • 유쾌한 말투, 격식 없는 대화, 깔끔한 에티켓. 처음 보는 사람도 격의 없이 대하는 그에게서는 한눈에 봐도 스타트업 기업 대표의 냄새(?)가 풍겼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열정과 확신으로 회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표의 성향이 '열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 알고 보니 대기업 총수의 자제란다. 국내 최초로 개인 맞춤형 임플란트 지지대를 개발한 김정한 라파바이오 대표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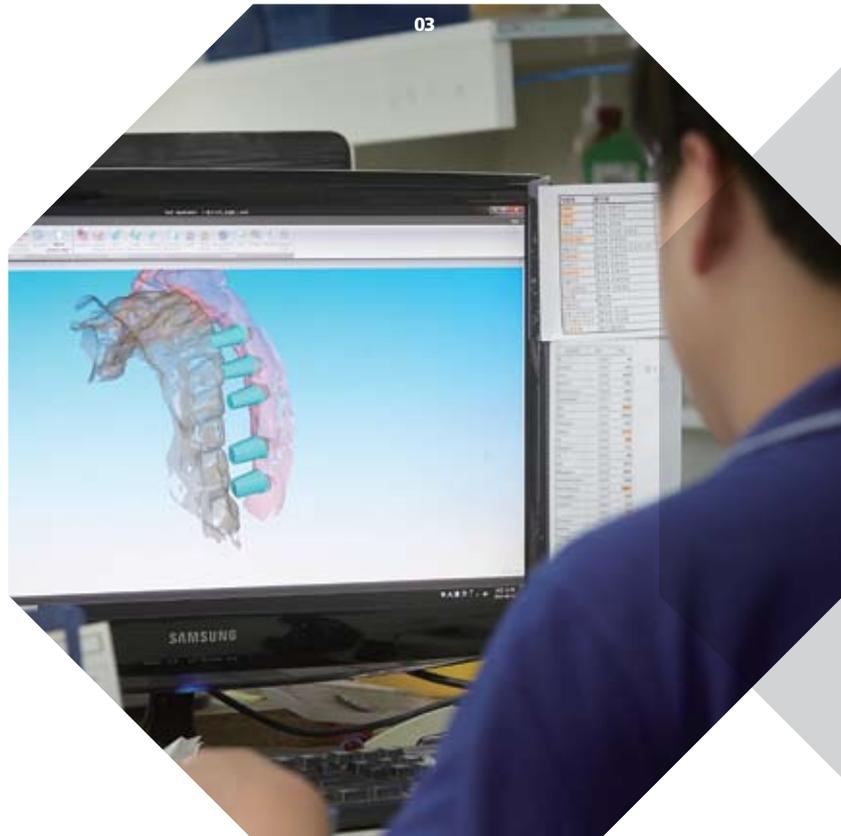
김정한 대표는 대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수근 대표의 장손으로 현재 대성산업 사장 직을 함께 맡고 있다. 그런 그가 대성그룹과는 전혀 관계없는 바이오산업분야에 발을 들여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어버트먼트(abutment, 지대주)를 개발했다. 대기업 총수 자제의 프리미엄을 벗고 창업을 결심했을 때, 그것도 그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바이오분야에

01 라파바이오는 2008년 1월에 설립돼 서울 본사와 경남 양산에 생산본부와 연구소를 두고, 맞춤형 지대주(abutment) 및 제작용 Process를 개발해 KFDA 인허가 취득과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200% 이상 고성장하고 있다. **02** 바이오 산업분야를 일관되게 개척하고 있는 라파바이오 김정한 대표. **03** 라파바이오 대구에 공장 연구소를 건립해 미국 FDA 인허가 진행 중이며, 환자 맞춤형 지대주 및 치과용 CAD/CAM System 제공을 통해 세계적 의료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도전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우려의 목소리로 그를 만류했다.

“6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저 스스로 제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이번에도 회사를 만든다고 할 때 가족들 걱정이 많았어요.(웃음) 제가 라파바이오를 창업하기 전, IT 계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했어요. 그 때 3차원 캐드와 캠(CAD/CAM)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받았죠. 개발을 하다 보니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와 실제 마켓을 접목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중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임플란트 시장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라파바이오를 설립하게 됐어요.”

라파바이오를 창업한 후 김정한 대표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지대주를 만드는 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임플란트는 환자 개개인에 맞춰져 있지 않아 크라운이 깨지거나 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현상을 유심히 살펴본 김 대표는 지대주를 다르게 만들면 답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단 음식을 좋아해서 치과를 많이 다니는데요(웃음). 한 번은 3년도 안 돼서 크라운이 깨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된 임플란트는 지대주와 크라운 사이의 공간이 많아요.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잇몸과 크라운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 악취를 유발하고, 나중에는 깨지기도 하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의 잇몸 상태에 따라 지대주 모양을 달리 만들어주는 디자인 작업이 관건이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이러한 디자인도 매우 섬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한 '마이플란트' • 환자 맞춤형 지대주. 라파바이오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마이플란트'다. 마이플란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플란트의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는 크게 총 세 가지 구조체로 이뤄져 있는데, 하나가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치근(Fixture)'이며 다른 하나는 인공치근과 크라운을 연결하는 '지대주(abutment)', 그리고 치아의 역할을 하는 '크라운(crown)'이 있다. 이 중 라파바이오에서 개발하는 구조체는 지대주로, 이는 잇몸 안과 밖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개개인의 잇몸 곡선에 맞는 모양으로 제작돼야 한다는 점에서 섬세한 기술을 요한다.

“임플란트 시술시 최종 크라운을 씌우기 전에 뿌리 기둥을 세워줘야 합니다. 마이플란트는 개개인에 최적화된 지대주입니다. 100%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있죠. 기존 기성품 지대주의 경우 잇몸을 충분히 눌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크라운 사이로 잘 들어갔어요. 반면 저희 제품은 잇몸을 충분히 눌러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지대주가 기존모델과 달리 크라운 안을 충분히 채우기 때문에 훨씬 튼튼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라파바이오는 마이플란트를 개발함으로써 기성품에 비해 나사돌림현상을 10배 이상 완화했으며 크라운 깨짐 현상은 3배 이상, 잇몸 등의 염증 부작용은 10배 이상 가까이 감소시켰다.

“지금은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기업을 창업하려고 보니 투자금이 몇 십억 단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시장가능성을 예측해야 했죠. 그 때부터 창업 전 특허작업에 매진했어요. 6~7개월 동안 실제 시장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치과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가격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형화된 작업방식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존 방법을 고수하다보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마이플란트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품질력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확보해야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특허도 댔던 것 같아요. 일단 필요하다 싶으면 모두 특허등록을 했거든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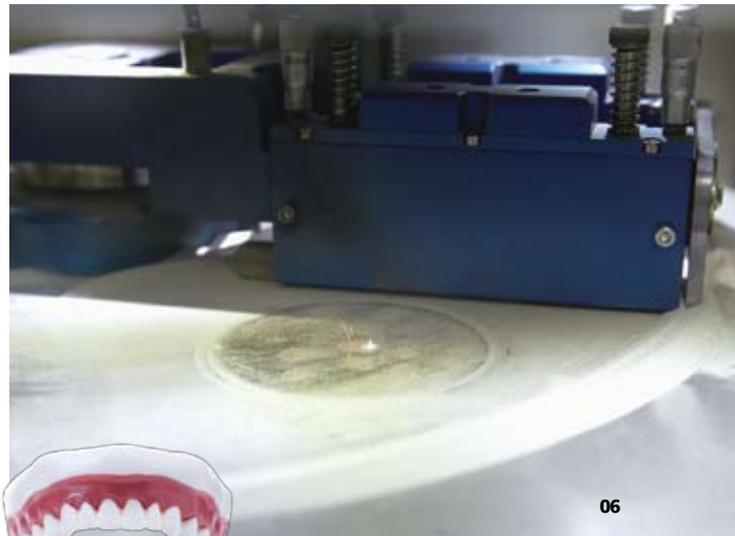
특허 길잡이 역할해준, 한국발명진흥회 · 약 1년 전부터 김정한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도움을 받게 됐다. 등록은 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던 특허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들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오승택 본부장은 “당시 임플란트 분야에서 혁명과 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게 됐다”며 라파바이오와의 첫 만남을 회고했다.

“대기업 창업주의 장손이면 사실 힘들게 기업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현대 김정한 대표는 개척정신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벤처정신이 많더군요. 직접 연구 하는 것은 물론 홍보와 영업까지 직접 펼 정도니까요. 소신 있는 기업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발한 제품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고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더욱 도움을 줘야 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에 마이플란트를 우수발명품으로 추천하고 우수구매초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김정한 대표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늘 먼저 연락을 주신다”며 “기업으로서는 특허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제품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장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구개발과 제품 마케팅만 하는 데도 빠듯해서 특허까지 따로 공부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명진흥회의 정보제공은 그야말로 큰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사업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좀 더 잘하는 방법을 찾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치를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치과 분야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보유한 특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제어에 대한 특허입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계산식을 모두 수행하는 거죠. R&D 1년 반 짜리 연구예요. 이처럼 섬세한 기술력으로 점점 공급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시대와 사회의 변류(變流)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기업철학이라는 김정한 대표. 시장의 가치만 쫓아가기보다 자신의 가치로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싶다는 그는 임플란트 시장에서 더욱 진보된 가치와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발명특이



06



07

04 오승택 본부장(좌)과 김정한 대표(우) **05, 06** 김정한 대표는 기존의 정형화된 작업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단순 가격내과의 경쟁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준도 없는 소프트웨어와 실물 제품의 기준을 잡아가는 밑바닥 작업부터 2년 넘게 초기준비작업 기간을 거쳤다. **07** 김정한 대표가 생각하는 훌륭한 인재는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 즉, 개인이 행복해야 회사일도 즐겁고 열심히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평범했던 엄마, 빛나는 엄마가 되다

한울 전은희 대표

한 평생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살기에도 벅찬데, 총 3개의 직업을 가진 여자가 있다. 집에서는 그저 자상한 아이들의 '엄마'로, 오전에는 체육관 필라테스 '선생님'으로, 오후에는 한 회사를 대표하는 '발명가이자 대표님'으로 하고 있다. 바로 집게 모양의 염색기구를 발명한 전은희 대표의 이야기다.



‘새치’ 고민이 만들어 준 아이디어 • 그녀 또한 여타의 엄마들이 그러하듯 초등학교 딸과 숙제를 하던 중이었다. 교내 ‘아이디어 발명대회’로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고민했다. 실용적이면서도 간단한 발명품을 생각하던 중 문득 최근에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새치’ 고민이 떠올랐다. 이마 옆으로 난 흰머리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머리 전체를 염색을 해야 했던 것.

“어릴 적부터 새치가 있어서 늘 스트레스였어요. 30대 중반이 되니 이마 가장자리까지 ‘진짜’ 흰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족집게로 뽑았는데 흰머리의 양도 점점 많아지고 뽑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새치가 난 부분만 염색을 하려고 해도 염색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 부분염색도 쉽지 않았어요. 새치가 나는 부분만 염색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편하겠다고 생각하던 참에 발명품을 떠올린 거죠.”

그녀의 아이디어를 들은 남편은 무릎을 ‘탁’ 치며 “이거 특허감이네!”라고 특허를 제안했다. “내 인생에 특허라는 거 한 번 내볼까?”하는 호기심 반 가족들의 응원 반으로 특허를 의뢰했고, 등록 가능성이 높음으로 판정돼 처음으로 특허를 내고, ‘발명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작지만 똑똑한 발명품 • 전은희 대표가 발명한 제품은 작은 족집게 모양의 1인 염색 기구다. ‘오블리치’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얼핏 보면 족집게 같기도 하고 칫솔 같기도 하다. 머리카락을 잡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핀셋 끝에 솔을 부착했기 때문이다. 솔에 염색약을 묻히고 새치가 있는 부분을 오블리치로 잡아당기면 뿌리는 진하게, 머리카락 끝부분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gradation) 돼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저 역시 오블리치로 염색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염색주기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주기로 연장되었지요. 저뿐만 아니라 딸의 머리카락 부분염색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애견 미용실에서도 부분 염색 시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편하고 좋다는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새치를 가리기 위한 도구였지만 지금은 부분 염색, 애견 염색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발명품으로 전은희 대표는 2009년 여성발명대회에서 변리사 회장상을, 2010년 세계여성발명대회, 2013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이 있는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01



02



03

01 오블리치는 대구 경북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에서 매진을 기록했다. 02 오블리치를 이용해 부분염색한 강아지 03 집게모양의 오블리치

큰 행사에 저의 작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죠. 거기에 은상까지 수상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 교류도 하고 조언이나 정보도 얻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발명, 좋은 방법을 위한 시도 • 모든 발명가들은 하나 같이 말한다. 불편에서 시작된 '생각'이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길이라고. 전은희 대표도 다르지 않다. 엄마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발명가이자 대표로서 그녀를 이끈 것은 어떤 우연한 '기회'보다도 우연한 '발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생각들을 꼭 잡고, 또 다른 운명 같은 일을 발견하기 위해 나선다.

“발명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시도이고 생각의 전환점이에요. 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해보세요. 한국발명진흥회처럼 발명이나 특허에 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거든요. 겁먹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면 더욱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아이디어로 어제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발명특이

아빠! 오늘도 무사히

01

02

SAMTAN ARTMINE

01 갯도 입구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빠!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이 마음 깊숙이 들어온다. **02** 관람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레스토랑 832L **03** 레일바이 뮤지엄에는 여전히움직일 것 같은 광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04** 그 시절 광부들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는 엑스레이가 전시되어 있다.

04



03



검은 땅 위에 핀 무지개



삼탄아트마인

낡고 오래된 것은 진부해 보인다. 더 이상 쓸모도 없어 보이며 곁에 두기 보다는 훌가분하게 치워지길 바란다. 오래된 것은 그저 필요 없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낡고 오래된 것에는 시간의 더께가 층층이 쌓인 추억이 남아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도 한다. 오래전 멈춰진 탄광을 개조해 문화예술센터로 만든 '삼탄아트마인'이 그렇다. 검은 석탄물이 흐르던 화약고 골짜기에 예술가들은 열정을 실어 그 시절을 살았던 광부들의 삶과 고단함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남겨진 탄광을 '재'확립하다 • 삼탄아트마인의 오래전 이름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이다. 1965년부터 2001년까지 오랫동안 석탄을 캐 올렸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민영 탄광이었다. 이곳에서 일했던 광부는 3,000여 명, 연간 캐냈던 석탄 분량만 해도 150만 톤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이곳 역시 폐광되어 10여 년 간 방치되어 있었다.

흡사 공포영화 같았던 이 을씨년스러운 곳을 새롭게 재확립한 사람은 삼탄아트마인의 김민석 대표이다. 그는 독일의 폐탄광이었던 졸페라인을 벤치마킹해 이곳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일찍이 여러 나라를 다니며 폐허가 된 공업단지과 폐광시설이 훌륭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활용되는 사례를 자주 접한 덕분이었다. 그 후 그는 삼척탄좌의 줄임말인 삼탄(Samtan)과 예술(Art), 광산(Mine)을 합쳐 '문화예술을 캐는 광산'이라는 뜻의 삼탄아트마인을 탄생시켰다. 삼탄아트마인의 가장 큰 특징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폐광의 모습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낡은 건물을 그대로 활용했다. 대신 내부 공간만을 현대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오래됨과 새로움을 공존시켰다. 그럼으로 탄광지역이라는 '역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술성'을 함께 확립시켰다.

탄광, 예술의 옷을 입다 • 삼탄아트마인에 들어서자 삼척탄좌 사무실인 본관 건물이 가장 먼저 반겼다. 또한 건물의 주변에는 원통형 수직갱, 지하 채광현장에 맑은 공기를 공급했던 수갱탑 등 탄광을 운영했던 건축물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견디며 자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과 반대되는 것이 삼탄아트마인의 본관 건물 내부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커피향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곳곳에 걸려있는 미술작품과 탁 트인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선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시관람 방법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삼탄아트마인은 본관 꼭대기 층인 4층에서부터 1층으로 내려가면서 전시를 관람해야 한다. 이는 광부가 석탄을 찾아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방식이다. 삼탄아트마인을 관람하는 방법을 따라 4층으로 올라갔다.

탄좌사무실이었던 4층은 실내전시장으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는 공간이다. 누가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또한 이곳은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인 레지던스 시설을 함께 두었다. 이는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유'를 통해 그들의 활동 역량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특별전 기간에는 레지던스를 오픈하여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니 그 기간에 맞춰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층은 삼탄뮤지엄자료실로 삼척탄좌 시절의 자료와 광원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전시했다. 철제 수납공간을 빼곡하게 채운 광원 일지와 무전기, 방독면, 급여 명세서와 거래 은행에 필요한 인감 신고서가 그때 그 시절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2층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세계미술품수장고와 기획전시실이다. 이 전시실을 가득 메운 미술품 10만 여 점은 김민석 대표가 30여 년 간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것들로, 유럽이나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희귀한 미술품들로 가득하다.

특히 눈에 띄는 전시실은 '미안갤러리4'이다. 그 오래전 탄광에서 일하고 돌아온 광부들이 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샤워장을 전시관으로 개조한 곳이다. 광부들이 직접 사용했던 샤워장이라고 생각하니 숙연함과 함께 그들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전시장 한편에는 당시 광원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폐와 척추 엑스레이 필름, 차음증 등이 전시돼 있다. 60~70년대, 산업의 일꾼이자 우리네 아버지들이



05 탄광에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대비한 대형 소화기가 눈에 띈다. **06** 12개월 내내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는 '동굴와이너리' 석탄을 캐던 수평갱을 개조해 그 시절을 회상해볼 수 있다. **07** 삼탄아트마인의 전시장 곳곳에는 현대 미술가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시물들이 많다.

살아온 모습이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했을 그들의 노고가 느껴져 마음 한 편이 아려왔다.

갱도 위에서 핀 꽃, 그 시절 광부의 마음을 보듬다 • 건물 바깥으로 나와 삼척탄좌의 중심시설, 조차장을 활용한 '레일바이뮤지엄'으로 갔다. 삼탄아트마인을 들어왔을 때 처음 시선을 압도했던 그 건물이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역사적인 물건들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람 복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탄광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다. 석탄을 캐기 위한 굴인 갱에는 광부들이 갱도로 내려갈 때 사용했던 승강기와 석탄을 운반하던 철로가 그대로 남아있다. 녹슨 철로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안전모와 공구, 그리고 이와 함께 멈춰버린 이곳의 시간은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남아있다. 행위예술가 신용구의 작품 흔적인 붉은색 꽃 또한 갱도와 어우러져 묘한 느낌을 전달해준다. 낮고 새카만 갱도 위, 붉은 꽃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어 그 옛날 탄광에서 일했던 광부의 '열정'이 무뎠 떠올랐다.

2억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만들어지는 석탄은 고귀하면서도 특별한 존재이다. 그런 2억 년의 세월을 깨낸 광부들... 지금은 기억 속에서 잊혀진지 오래지만, 삼탄아트마인은 여전히 탄광의 보석 같은 옛 세월을 캐기 위해 분주하다. **발명특허**



05



06



07

SAMTAN ARTMI



GLOBAL REPORT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각 나라별 지식재산기구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합니다

자료제공_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중국 치후360, 중국 기업 최초로 GUI 관련 디자인 특허 등록 완료

www.iprchn.com



CHINA

지난 8월 14일, 중국 치후360은 중국 기업 최초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디자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치후360은 이미 약 140건의 GUI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며, GUI 디자인 특허 등록을 통해 제품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하 SIPO)은 지난 7월 30일부터 베이징시 차오양 지식재산권 신속권리보호센터*를 통해 디자인 특허에 관한 신속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치후360의 GUI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결정했다.

SIPO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GUI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기업들의 GUI 디자인에 관한 모방이 많았으며, GUI 디자인 보호에 관한 기업들의 요구가 증가했다. SIPO는 GUI 디자인에 관한 특허 등록을 위해 지난 3월 「특허심사지침 개정을 위한 국령**」을 발표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 지식재산권 신속권리보호센터는 특허 출원, 등록, 집행, 사법 심리 서비스 모두를 연결해주는 종합 플랫폼으로, SIPO 문서에 대한 날인 및 특허 등록 등 특허 행정 업무를 수행함.

**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ipo.gov.cn/zwgg/fj/201403/120140314_916952.html.

일본 경제산업성, 만화애니메이션 해적판에 대한 대책 발표

www.meti.go.jp



지난 7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METI)은 일본 만화·애니메이션의 정규 콘텐츠 사이트인 「Manga-Anime here*」를 개설하고, 동시에 약 580개 작품을 대상으로 향후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적판 삭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문화청이 2012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중국의 주요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충칭)에서 일본 콘텐츠의 피해액은 연간 약 5,600억 엔으로 추산된다. METI가 2013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미국에서의 만화·애니메이션 온라인 해적판 피해액은 약 2조 엔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해적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출판사 및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은 「만화·애니메이션 해적판 대책 협의회」를 발족해 「만화·애니메이션 보호 프로젝트(Manga-Anime Guardians Project, MAGP)」를 추진했다.

MAGP의 일환으로 만화·애니메이션의 해적판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지난 8월 1일부터 만화 약 500개 작품, 애니메이션 약 80개 작품을 대상으로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적판 삭제를 실시함
- 일본 만화·애니메이션 독자들을 정규 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만화·애니메이션의 정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 「Manga-Anime here」를 개설함
- 정규 콘텐츠 시청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의 일환으로, 일본의 명작 만화·애니메이션에서 「고마워(ありがとう)」 장면을 추출해 편집한 영상을 공개함

해적판이 시장에서 소멸되어 정규 콘텐츠 구입의 대가가 새로운 작품의 창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동 홈페이지는 <http://manga-anime-here.com>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유럽의 관세 규정 적용범위 확대 판결

www.lexology.com



지난 7월 29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이하 EU) 관세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非 EU** 수입업체에 의해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유럽 세관이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 이전에 EU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되었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인지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 이는 EU 관세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개인 수입용품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시사한다.

| 개인 소비자와 롤렉스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분쟁 |

덴마크 출신인 Blomqvist는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롤렉스」로 설명된 시계를 주문 및 구매했고, 판매인은 홍콩에서 택배로 Blomqvist에게 보냈다. 덴마크 관세청은 해당 시계가 덴마크에서 롤렉스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및 침해상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을 압수했다. 롤렉스는 해당 시계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제품 파기를 요청했다. Blomqvist는 덴마크에서 어떠한 지식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와 관련해 관세 규정의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Blomqvist가 덴마크에서 롤렉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했다. Blomqvist는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시계를 구매했기 때문에 덴마크 내에서 Blomqvist는 「일반 유통(저작권 지침서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 또는 「교역 중 사용(상표 지침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 판매인은 덴마크 내에서 롤렉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 제품을 Blomqvist에게 판매한 것은 「일반 유통」에 해당되며 또한 판매 사실 자체만으로도 해당 제품이 위조 또는 침해상품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 당국은 해당 시계의 압수 및 파기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마트카드 칩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

europa.eu



지난 9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nfineon, Philips, 삼성전자, Renesas가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스마트카드 칩* 가격을 담합해 유럽연합 규칙을 위반했으므로, 해당 기업들에게 총 1억 3,804만 8,000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동 기업들이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자사의 특허기술에 대한 양자 간 계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발견했으며,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동 기업들은 소비자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간 계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가격 책정 관련 특허 기술 이용, 소비자, 계약 협상, 생산량 또는 미래의 시장 전략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상업적 정보들을 교환하고 논의했다.

동 행위는 가격담합 및 제한적 기업 업무를 금하는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101조와 유럽경제지역협정(EEA)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다음과 같이 총 1억 3,804만 8,000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각 기업별 과징금 |

	면책 공고에 따른 감면율	과징금(유로)
Infineon(독일)	0	82,784,000
Philips(네덜란드)	0	20,148,000
삼성전자(대한민국)	30%	35,116,000
Renesas(일본)	100%	0
총계		138,048,000

Renesas는 집행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2006년 자진 신고자 면책 공고(2006 Leniency Notice)」에 따라 과징금이 면제됐으며, 삼성전자는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과징금을 30% 감면 받았다.

* 스마트카드 칩은 휴대폰의 SIM 카드, 은행 카드, 신분증 및 여권, 유료 TV 수신 카드 및 다양한 장비에 사용됨.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에 대한 재심사 처리기간 단축

www.patentspostgrant.com



지난 8월 13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이하 PTAB)*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에 대한 재심사 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고 발표했다.

PTAB는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 및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 절차를 7개월 내에 처리하고 있다.

미국 발명법(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이 12개월인 것을 고려할 때, PTAB는 7개월의 처리기간 이후 약 5개월간 판결문을 작성하고 공표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에 대한 정정은 불가능하므로, 재심사 절차가 개시된 이후 「특허권자의 정정신청 → 정정신청에 대한 재심사 청구인의 이의제기 → 특허권자의 답변」에 소요되는 약 1개월의 기간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에 대한 재심사 절차는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특허에 대한 재심사 일정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지식재산 또는 화학 및 전자공학 등의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181명의 판사가 재직 중임.

**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

**일본 쇼와노트,
노트분야 최초로 입체상표 등록**

www.nlab.itmedia.co.jp



지난 8월 5일, 일본 쇼와노트는 「자포니카 학습장」이 노트북분야에서는 일본 최초로 일본 특허청(JPO)에 입체상표로 등록되었다고 발표했다. 입체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징하는 입체 형태를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동 학습장이 입체상표로 인정됨에 따라 디자인만으로 「자포니카 학습장」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미국 Microsoft, 삼성전자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제기**

www.reuters.com



지난 8월 1일, 미국 Microsoft는 삼성전자의 특허 사용료 미지급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Microsoft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탑재되는 구글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2011년도에는 특허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Microsoft가 지난 해 핀란드의 Nokia로부터 휴대전화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특허 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최종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Microsoft는 삼성전자가 특허 사용료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Microsoft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Tesla」 상표권자,
미국 Tesla와 상표권 양도에 합의**

www.worldpreview.com



지난 8월 7일, 중국의 「Tesla」 상표권자인 진바오성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Tesla와 상표권 양도에 합의했다. 미국 Tesla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바오성과 상표권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진바오성은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포기하고, 「Tesla」 상표권 및 도메인 네임(www.tesla.com.cn) 등을 Tesla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진바오성은 지난 2009년 광둥성에서 자동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영문 「Tesla」 및 중문 「特斯拉」 명칭과 로고에 관한 상표 등록을 완료함
- 지난해 미국 Tesla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 진바오성이 소유한 「Tesla」 상표에 대해 3년간 상표 불사용에 따른 등록 상표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진바오성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SAIC 상표국은 Tesla의 상표권 등록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3년 8월 진바오성의 상표권을 취소함
- 진바오성은 지난 2014년 6월,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에 따라 약 2,400만 위안의 손해배상청구와 「Tesla」 전기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함

한편, 진바오성은 「Tesla」 상표 이외에 외국 기업들의 상표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업들이 향후 중국 진출에 진바오성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IP NEWS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선진 유럽 특허기술시장 본격 진출

특허청은 국제 기술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국내 대학·공공(연) 특허기술과 이를 도입한 중소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학·공공(연) 기술사업화 협력 네트워크인 「R&D IP 협의회」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인 「ISIS Innovation」은 지난 9월 4일 서면 업무협정(MOU)을 맺고 양국의 특허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영국 ISIS는 지난해 말 기준 9,756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통해 10개의 창업기업을 설립했고, 약 100억의 기술 수익료를 창출한 바 있다.

특허청은 지난 3월 영국 특허청과 함께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력 체결은 실질적인 후속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국제협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업무협력은 국내 대학·공공(연)의 연구성과인 특허기술이 국내·외 산업계로 이전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장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기술 선진국인 유럽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지난 7월에는 특허청이 주최한 「R&D IP Tech Fair 2014」에서 ISIS의 관계자와 협의회 회원기관인 7개 대학·공공(연) 12개 보유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교류회를 가졌다.

오는 11월, 협의회는 영국 옥스퍼드 현지에서 협의회 회원기관의 연구자와 ISIS 및 유럽 수요 기업 간의 실질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현지 '기술교류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현지 '기술교류회'에서는 ISIS의 선진 기술사업화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공공(연) 기술사업화 전담 지원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 및 해외 현지 기술교류회 등의 해외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특허기술 사업화 질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양국의 대학, 기업 등이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관련 협약 체결 시 연구 성과인 특허권 소유와 활용, 성과배분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공동연구 유형별 가이드라인

혁신 현장 찾아 국민 디자인 활동 본격화 특허청, 국민참여형 정책추진 및 현장소통을 위해 민간 혁신현장방문

지난 9월 2일 대구 소재 JVM 및 전주 소재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공급자인 특허청과 정책 수요자인 기업 간의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본 간담회는 국민과 공무원이 정책 및 서비스를 함께 디자인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소통이 이루어진 뜻 깊은 자리였다.

본 간담회에서 특허청 '혁신리더' 및 방문 기업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해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정책 소개, 민·관 혁신사례 공유, 지식재산권 종합 컨설팅 등 수요자 의견수렴 및 민·관 현장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혁신리더'란 현장소통, 국민 참여형 맞춤형 서비스 구현 등 정부3.0의 대·내외적 확산을 위해 선발된 특허청 각 부서 대표주자들이다. 특허청 전 부서에서 1명씩 선발된 '혁신리더'(75명)들은 개방성·협력성·문제해결 능력 등이 우수해 특허청 혁신 전도사로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다.

방문기업 중 하나인 JVM은 병원·약국 조제 관련 자동화시스템 생산기업으로 지식재산 잠재력을 인정받아 특허청 'IP Star 기업'(성장 단계별 지식재산 육성서비스)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견고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 기업 대표이사는 "정책 공급자인 특허청이 정책 설계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신선했으며,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보는 정부3.0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정부3.0 혁신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혁신리더들의 현장방문을 계속할 계획이며, 지식재산권 지원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환류 과정 전반에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지속 반영할 방침이다.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 확대

특허청은 일반인, 기업 등이 특허출원 이전에 해외 선행기술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월부터 대국민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 일본 특허문헌의 검색 범위를 일본 특허공보로 확대하고,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검색결과 목록에서 제공되는 서지사항*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제공되는 일본 특허문헌의 검색 범위는 일본특허영문초록(PAJ) 약 969만 건에 불과했고, 영어로만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특허청이 1,556만 건의 일본 특허 공보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일본 특허공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한국어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해외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 선행기술조사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허출원 시 중복특허 출원 방지, 회피 설계 등을 통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등록된 특허의 권리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어 강한특허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특허문헌을 일반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색결과 목록에서 제공되던 서지사항 정보를 기존의 출원인, 출원일자 등의 단순 정보에서 국제출원, 국제공개 및 우선권주장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김현수 정보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정보의 접근성·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하고 더 많은 해외 특허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충실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강한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지사항 : 출원인, 출원 · 공개 · 등록일자, 출원 · 공개 · 등록번호, 기술분야(PC) 등을 포함한 특허관련 정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녹조 해결'이 우선

생수가 수돗물에 비해 220배나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만이 수돗물을 식수로 활용한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으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지만 좀처럼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가정은 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수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해 2012년 판매액이 4천 6백억 원에 달했다.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 좋은 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이유지만, 상수원을 비롯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녹조' 역시 이러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녹조 주의보가 발생된 2012년에는 생수 판매가 급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수가 동이 나기도 했다. 양질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녹조방제기술(녹조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 및 발생한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녹조방제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2009년 79건에서 2013년 12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녹조방제기술개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허출원 중 약 84%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하·폐수 등에 포함된 질소와 인을 제거해 녹조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기술(물리·화학·생물학적 기술)'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장이 성숙되어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녹조예방을 위한 비용, 효율, 공정 개선 분야에서 주된 연구와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녹조방제는 녹조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기술뿐만 아니라 녹조를 사멸시키는 기술(분해기술), 녹조를 분리해 제거하는 기술(분리기술), 생성된 녹조를 침강시켜 제거하는 기술(침강기술) 등 '사후 제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허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허청 심사관, 산업현장에 한발 다가서다

산·학·연과 연계해 생활가전 분야 전문 정보지 발간

지난해 9월 특허청은 산업분야와 부합되도록 산업별 체계에 따라 심사조직을 개편했다. 그에 따라 산업계의 눈높이에 맞는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산업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타깃 장에 진출하기 위한 제품 개발과 특허전략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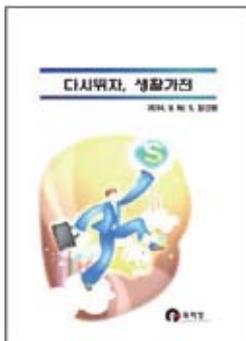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생활가전 분야 전문 정보지인 '다시 뛰자, 생활가전'을 창간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3대 대형가전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전망, 최신 기술과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했으며, 산업계의 현장 르포 등의 기고를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은 향후 생활가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신 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나라별 시장환경 및 제품 트렌드를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된 성과물은 분기마다 정보지를 통해 산·학·연에 제공되며, 단순히 성과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산업계와 공동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천세창 특허심사국장장은 "지속적인 산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내 생활가전 업계가 타깃이 되는 국가의 시장에 맞는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 동 정보지는 산·학·연 및 관련 단체에 무료로 배포되며,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특허청 생활가전연구회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된다.

※ 소식을 전자우편으로 수신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생활가전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kipo.go.kr/club/airtech>) 또는 전화(042-481-5465)로 신청 가능하다.



특허로 예측하는 미래의 군사로봇

로봇을 착용한 병사가 전장을 누비다

최근 상영된 영화 중 '아이언맨' 및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환상적인 로봇슈트를 보여주고 있다. 슈트의 도움으로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을 발휘하거나 슈트에 장착된 무기로 외계인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로봇슈트를 착용한 병사는 전투 중 체력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무거운 포탄을 쉽게 운반할 수 있다. 또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전투 중 전장(戰場) 정보 및 명령을 실시간 송수신하고, 원격 조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무장으로 다양한 성격의 전투에 범용성 있게 투입 가능하며, 소수의 정예화된 전투병력으로 많은 전투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군(軍)은 장비의 현대화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무인 정찰기 등의 기술은 이미 상용화 되었다. 최근에는 로봇슈트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특허출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9년 5건에 불과했던 로봇슈트 관련 특허출원이 2013년 18건, 2014년 7월 현재 17건으로 최근 2년 동안 대폭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원이 대부분 로봇슈트의 작동원리 및 기능에 대한 것임에 비해 최근에는 로봇슈트의 성능향상을 위한 센서, 동력장치, 에너지 분야의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로봇슈트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출원된 로봇슈트 관련 특허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육의 전기적 신호로부터 인체의 힘을 측정하는 기술, 인체의 움직임으로부터 힘을 증폭시키는 기술,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자세제어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동예측 기술 등이 출원되고 있으며, 또한 기어 또는 와이어를 이용하던 기계적 구동장치를 대신해 인공근육을 이용하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의 권영호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신속하고 유연한 작동성과 장시간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적으로 군에 적용 가능하며, 장애인 또는 노약자용 보조기구 및 위험작업용 작업장치로서 사용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특허청-KB국민은행,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9월 16일, 특허청과 KB국민은행이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과 KB국민은행은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발굴 및 육성, 지식재산권 담보금융 시행,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등에 관해 업무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물적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초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과 협력하여 2013년 9월부터 IP 담보대출을 통해 2014년 8월까지 76개 기업에 7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시행했다. 특히 2014년에는 IP 담보대출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5월29일)·신한은행(6월26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개발에 협력하였으며, KB국민은행과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정부의 새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기술금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의 '금융지원 3대 핵심테마'를 발표했으며, 「지식/기술금융 지원」을 위해 기술력 평가에 의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 여신한도 및 금리우대, 기술금융지원 시 직원 면책기준 등을 반영한 3종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 중 이공계 출신의 변리사 및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다수 채용해 지식/기술가치평가 및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지식재산 금융 기반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 이후, 특허청과 KB국민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IP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으며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른 신규 상품 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특허청
청소년 창의발명교육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지난 9월 1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등 17명)과 특허청은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청소년 창의발명교육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전국 196개의 발명교육센터 설치·운영, 발명교육정규교과 반영, 발명영재 육성,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 나눔발명 교육, 청소년 발명페스티벌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명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특허청이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본격적으로 청소년의 창의발명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내용은 전국의 발명교육센터 활성화, 발명직업교육의 확대, 발명영재교육 활성화, 공동연구, 우수 발명활동 발굴 등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획일적인 정답 찾기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조와 도전을 즐기고, 토론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발명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청소년들이 보다 발명에 친숙해지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가 발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창의발명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 이후, 시·도 교육청과 특허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 가능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업무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KIPA NEWS

2014년 제2회 임시이사회 및 간부워크숍 개최

우리회는 제27회 임시이사회를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등 11명의 임원과 우리회 간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위치한 군자마을에서 9월 27일에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광림 회장의 개회 선언 후 의결안건인 직제규정 개정(안), 회계 규정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고, 이사회 위임사항 처리결과, 정원 증원 보고안건 2건이 원안 접수됐다. 이사회 개최 전, 우리회의 경영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주형 기획부 과장은 이사들과 간부들에게 '한국발명진흥회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비전과 3대 전략목표에 따른 11개 전략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광림 회장은 "한국발명진흥회 중장기발전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좋은 의견 주신 여러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내 최초에서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회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강원도 지식재산(IP)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제3회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회, 특허청,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운영 중인 강원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여,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강원도민의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도내 지식재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강연, 전시 프로그램 등이 펼쳐졌다.

행사 첫날은 우주인 후보였던 고산 씨가 '강원도 3D 프린팅 산업전략'을 주제로 지식재산 포럼 강의를 해 강원도의 새로운 전략산업 발전을 모색했다. 또한 아이디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3D 프린터 체험관', 도내 지식재산 인재육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성 업무협약 및 지식재산 취업설명회'는 강원도 지식재산 프로젝트를 측면 지원했다.

둘째 날에는 대한민국 브랜드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가 진행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브랜드 패러다임 강원'을 주제로 지식재산 콘서트를 진행, 브랜드와 디자인 중심의 새로운 지식재산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또한 도내 대학의 우수 특허기술 만남의 장인 '강원 특허기술 한마당'은 일부 기술의 무상 이전은 물론 변리사, 대학교수, 기술거래사의 상담을 받는 등 다채로운 행사와 중소기업 우수 IP 제품 상설 홍보·전시 등도 개최됐다.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도민들이 지식재산에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소년기자단 취재대회 및 시상식 개최

우리는 발명에 대한 관심 확산 및 발명 활동 동기 부여, 취재를 통한 취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기자단 취재대회를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립중앙과학관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했다.

청소년 기자단은 '제3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의 출품작에 대해 기사를 제출했고, 제출된 기사를 심사해 최우수상인 국립중앙과학관장상 3점, 우수상인 한국발명진흥회장상 3점, 장려상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3점 등 총 9점의 상을 8월 21일에 시상했다.

우수상인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발명품으로 탄생하다!'를 작성한 청구개신초등학교 이유리, 영동중학교 정연호, 동산고등학교 정진우 학생이 수상했다.

조은영 부회장은 "미래 기자들에게 꿈과 끼를 심어줄 수 기회가 되어서 기쁘며, 앞으로 한국발명진흥회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본 대회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지식산업국, 대만 PSC 방문단 연이어 우리회 방문

지난 8월 28일, 마웨이(Ma Wei) 국가지식산업국 특허관리국장 등 7명은 지식재산권 금융·평가·거래 등 지식재산권 활용 증대를 위한 한·중 간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회를 방문했다.

이어 지난 9월 16일, 대만 특허조사기관인 PSC(Patent Search Center) 리씨우랑(Hsiu-Lang, Lee) 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우리회를 방문하여 양 기관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한 향후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는 각국 방문단을 위해 별도의 우리회 사업소개 시간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가치평가 시스템, 기술이전,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사업화 등 분야별 과장급, 전문위원 다수가 참여해 방문단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은영 부회장은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제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동력이며, 한국과 중국, 대만 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지재권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지재권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미래,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됩니다”**
『2014년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아이디어 구체화 교육 실시

우리회는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해 1단계 심사에서 선정된 20개 팀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내부전문가를 활용해 아이디어 개선 및 구체화 교육을 한국 지식재산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했다.

『2014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은 대학(원)생 등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선정해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지원 사업으로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70개 팀 303건의 아이디어가 모집됐다.

아이디어 모집 기간 중 전국 대학 발명 동아리 임원을 대상으로 2014 무한상상실 사업홍보 세미나 개최 및 사업 홍보대사 임명을 통해 각 대학 발명동아리가 보유한 우수 아이디어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힘썼다.

앞으로 2단계 심사를 걸쳐 10개 팀을 선정해 아이디어 권리화, 창업 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담당 멘토의 점검 및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중 3단계 심사를 걸쳐 특허출원 비용 지원 3개 팀, 창업컨설팅 지원 2개 팀 이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리회,
2014 윤리경영 특강 개최**

지난 8월 5일, 우리회는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2014 한국발명진흥회 윤리경영 특강’을 임직원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박연정 윤리교육센터 WAR 대표가 ‘작은 행동이 만드는 큰 변화’란 주제로 △ 왜 윤리경영인가? △ 행동강령 사계 소개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우리의 과제 등의 내용으로 120분간 진행했다.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부패유형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로 쉽게 풀어내고 품격 있고 지혜로운 임직원이 되는 실천적 방법 등을 소개해 특강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원희재 기획부 계장은 “이번 교육이 우리회 임직원으로서 ‘청렴’을 생활화 하는 실천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풍토를 조성하는 등 청렴의식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 확산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 개최**

지난 8월 21일, 우리회는 창조경제시대에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외 확산을 위한 '2014 명사초청 특강'을 임직원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창조경제시대에 지식재산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언론 홍보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이슈 및 트렌드를 공유하여 임직원의 IP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1부에서는 김진두 YTN 과학기상팀장을 초청하여 '지식재산 의식 확산을 위한 언론 활용전략'이라는 주제로 창조경제와 맞물려 지식재산 이슈 발굴방법, 대언론 관계관리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김호원 前 특허청장을 초청해 '특허는 기술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산업계에 부는 특허무용론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시각과 학제적 분석을 통해 최신 IP 정책 동향을 파악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IP 선도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공유했다.



**우리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실천
양평 천사의 집에 후원금 전달**

지난 9월 4일,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한가위를 맞아 KIPA 사회봉사 단장으로서 경기도 양평 천사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조은영 부회장은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 한다"며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국발명진흥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IPA 인사동정

퇴사

허동욱 부장	지역지식재산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8. 17)
-----------	---

전보

이건환 선임연구원	인재개발연구본부 발명영재교육연구원 근무를 명함. (2014. 9. 22)
--------------	---

복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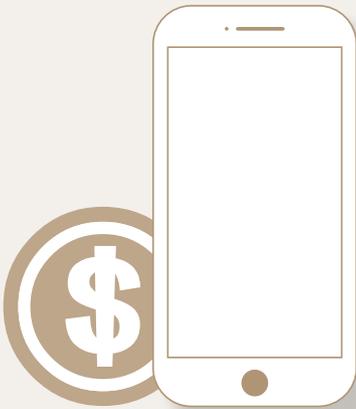
이혜미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부 근무를 명함. (2014. 9. 22)
-----------	---



발명특허의 모든 것 “보고, 듣고, 생각하다”

7+8월호 리뷰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매호마다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2014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이 코너에 주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7+8월호에 대한 모니터링단의 주요 의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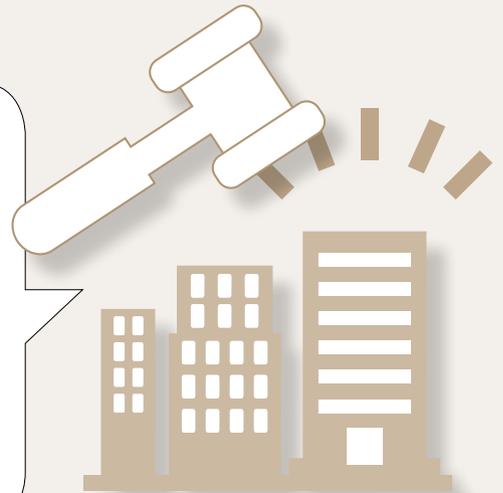


● 이동훈 (대학생, 28세)

〈IP FCCUS〉- 이번 IP FOCUS에 실린 기사들은 모두 일반대중들의 이목을 주목시킬 수 있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이슈들이었다. 놀라웠던 것은 집필진의 깊이 있는 식견이었다.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이 MS의 노키아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MS가 노키아를 선두에 두고 특허사용료를 올리는 조정행위를 통해, 저가로 경쟁력을 선점하였던 중국 업체들의 경쟁성 악화를 노리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또한 다르지 않다는 글이 인상 깊었다. 하나의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층의 대립은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며 장래 우리의 미래라는 취지의 내용은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 정복자 (교육공무원, 5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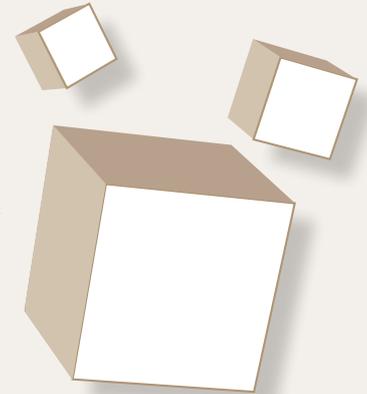
〈IP FCCUS〉- ‘중국의 특허괴물 대처법’을 읽고 노키아와 MS사의 동맹 후 벌어질 파장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됐다.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에도 공장 폐쇄라는 영향을 미쳤다. 2,000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이어 유발되는데, 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당황스럽다. 정부에서는 특허괴물을 예의주시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미국이 MS, EU는 노키아 편을 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가오는 로봇카 시대와 특허괴물’의 기사에도 특허분쟁에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특허괴물 대처에 대한 방법적인 내용과 정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사였다.



● 김서정 (주부, 33세)

<IP FOCUS> - 최근 3D 프린터 핵심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핵심 특허 기간 만료, 3D 프린터의 대중화 시대 열리나'라는 기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스타라타시스와 3D시스템즈에 의해 시장이 양분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 다양한 활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에 3D 프린터를 이용해 찌그리진 두상을 복원시킨 기사를 보고 그 중요성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3D 프린터를 통해 어떠한 제품들이 생산될지 기대된다.

<Action 01-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미래의 발명 꿈나무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모습을 잘 나타낸 기사였다. 다만 수상 발명품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이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 기사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지만 사진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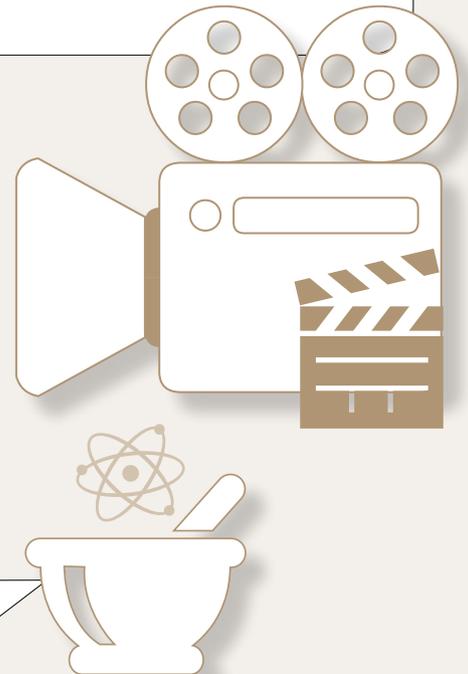
● 이수동 (공무원, 61세)

<IP FOCUS> - 미국 등 각국에서 3D 프린터산업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여러 종류의 제품이나 신소재 개발은 못하는 형편이다. 원천 특허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터 선도기업들이 올해로 특허가 만료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지만, 종전 특허에 대한 개량특허를 대거 출원해 우리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량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3D 프린터 선도기업들의 개량특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이석진 (특허 컨설턴트, 34세)

<Creation> - 주철환 PD는 방송PD로 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름만 들어도 "아~ 그 프로그램!"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라는 호칭을 얻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핍과 공핍을 딛고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다시금 그의 노력과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낼 수 있었다.

<IP FOCUS> - '인간의 유전자, 특허의 대상인가?'란 기사가 인상 깊었다. 미리어드 사례를 통해 유전자 특허 분야에서 발생한 새로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인지 세심하게 분석한 내용이 이해도를 높여줬으며 유명인사의 해외토픽과 절묘하게 이어져서 어려운 주제임에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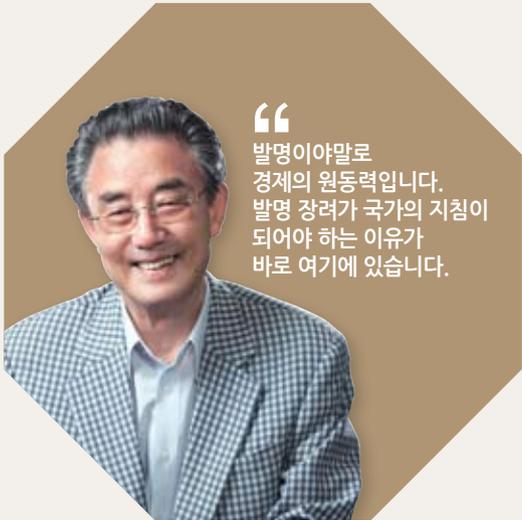




발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시대 존경받는 원로 발명가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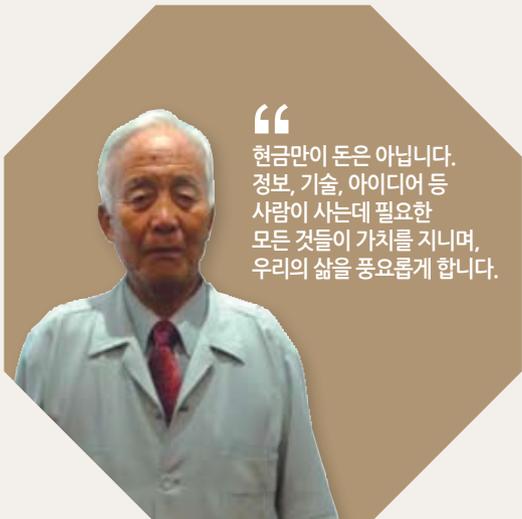


“ 발명이야말로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발명 장려가 국가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건희 발명가
발명특허 65건(국내 43건, 국제 22건)

서건희 발명가는 오랜 연구 끝에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목재 문틀 및 창틀을 PC콘크리트 제품으로 대체하였고, PC콘크리트 제품표면에 나뭇결무늬 현출방법을 개발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제25회 발명의 날에 발명가로서 첫 번째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인류의 과학적 문명은 발명과 발견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왔다고 말하는 그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제품을 많이 생산해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현금만이 돈은 아닙니다. 정보, 기술, 아이디어 등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윤은한 발명가
특허실용 16건, 디자인 9건, 상표 95건

윤은한 발명가는 40여 년 동안 매일매일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다. 하루에 보는 신문 개수만 해도 40가지 정도. 중요한 기사 아래에는 날짜, 신문사 이름, 기자 이름 등을 꼼꼼히 적어두는데 이것 또한 저작권법을 생각해서라고 한다. 이러한 습관이 그에게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한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을 보고 생각하는 것, 지금도 뜨거운 발명에 대한 열정. 이것들이 지금까지 발명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KIPA QUIZ

● 2014년 9+10월호 퀴즈

- Q.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 Q. 상품 또는 상품 포장(용기 포함)의 형상 등과 같은 입체 형태를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제도로,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되거나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도형·색채 등을 결합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2014년 7+8월호 퀴즈 정답

01. 자율주행 자동차(로봇카)
02. IP창조Zone

● 2014년 7+8월호 퀴즈 당첨자

- 이용운 dyddy****@daum.net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갑수 onet****@nate.com (전라남도 장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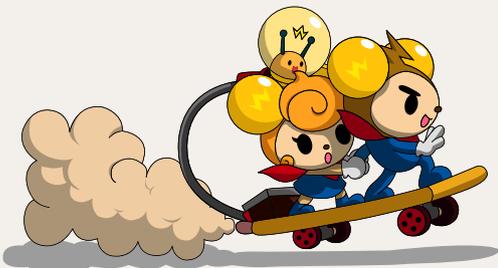
● 유재범 독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한민국 곳곳의 'IP 네비게이션'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역지식재산부를 소개하는 기사 잘 보았습니다. 세계 유수의 발명품과 히트상품 중에는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 적지 않은데, 아직 우리의 현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혁신적 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숨겨진 진주를 찾아 지원해주고, 협력 주선 및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잘 각인시켜주었습니다.

● 조영민 독자 (경기도 의정부시)

모든 기사들이 알차고 흥미로워 한 여름의 무더위를 잊고 <발명특허>에 빠져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4년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최'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 발명과 특허 문화의 밝은 미래를 미리 엿보는 듯해 읽는 내내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발명 꿈나무들의 기발한 상상력이 담긴 발명품들과 더불어 열정 가득한 청소년들의 야무진 모습 속에서 제2의 정약용 선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디 본 페스티벌과 같이 청소년들의 빛나는 창의력을 키우고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지원 정책들이 더욱 많아져서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Readers Comments



지식재산 전문정보지[발명특허]를 읽고 퀴즈의 정답과 독자의견을 pk6122@kipa.org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11월 14일)

원고 모집 안내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전문정보지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고 투고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원고 모집 안내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의견과 정책·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지식재산 전문정보지입니다.

콘텐츠 중 [IP Focus]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투고를 받고자 합니다. 단, 길고 딱딱한 글이 아닌 신문의 칼럼 형식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 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 원고 주제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 분량 : 원고지 22매~24매(A4용지 10Point, 3매 이내)
- 모집 시기 : 상시 모집
- 보내실 곳(E-mail) : pk6122@kipa.org

● 한국발명진흥회 지회·지부 안내

지회·지부	지회장·지부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정기상	김유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가야동) 새마을회관 6층	051-645-9683
광주지회	김보곤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403호	033-264-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2층 9호	063-471-1284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적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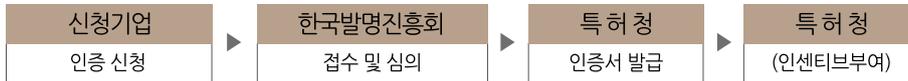
인증제 개요

-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신청 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인증 절차



인증심의 기준

-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 인증 기준 :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 자격부여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특허청)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 개선기술개발사업 등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 등 3개 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인증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 감면(2년간) (2014.03.01.일부터 적용)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3월 3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발급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신청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02-3459-2845, 2793 / 2845@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2014년 교육일정표

(단위: 원)

지식재산 일반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환급/지원	수강료(회원사)
1	02.12~02.14	지식재산권 기초 1기	노동부 환급 15~20% 환급	각 과정당 55만(48만)
2	02.19~02.21	미국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전략 1기		
3	02.26~02.28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1기		
4	03.05~03.07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1기(전기·전자·기계)		
5	03.05~03.07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1기(화학·생명·바이오)		
6	03.19~03.21	특허 검색기초 및 특허성 판단 1기		
7	03.26~03.28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1기		
8	04.02~04.04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전기·전자·기계)		
9	04.02~04.04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화학·생명·바이오)		
10	04.09~04.11	미국특허분쟁 및 소송 대응전략		
11	04.23~04.25	특허기술가치평가 실무		
12	05.14~05.16	지식재산권 기초 2기		
13	05.21~05.23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출원전략(도면까지)		
14	06.18~06.20	강한 상표를 위한 출원 및 사업화전략 (브랜드마케팅까지)		
15	06.25~06.27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맵 구축전략		
16	08.27~08.29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7	09.02~09.04	미국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전략 2기		
18	09.17~09.19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전기·전자·기계)		
19	09.17~09.19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화학·생명·바이오)		
20	09.24~09.26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2기		
21	10.06~10.08	특허 검색기초 및 특허성 판단 2기		
22	10.15~10.1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전기·전자·기계)		
23	10.22~10.24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2기		
24	11.05~11.07	지식재산권 기초 4기		
소계		24회	-	-

※ 노동부 :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고용보험 가입대상자면 누구나 교육비의 약 15%~20% 환급)



한국지식재산센터



제1교육장



제2교육장



교육생 휴게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2014년 교육일정표

(단위: 원)

지식재산 특별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회원사)
1	03.14	해외 특허출원 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1기	각 과정당 18만(15만)
2	04.18	중국의 IP이슈	
3	05.02	특허분쟁 발생시 단계별 대응전략	
4	05.28	유럽의 IP이슈	
5	06.05	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기	
6	06.13	PCT 출원마스터	
7	07.04	직무발명 신고 및 보상절차, 보상액 산정	
8	07.11	특허소송 시 변론능력 SKILL UP	
9	08.08	모바일산업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10	08.18	IP R&D(제품수명 주기에 따른 특허전략)	
11	08.22	해외 특허출원 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2기	
12	09.12	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13	10.01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14	10.28	각국별 상표출원 및 마드리드 출원전략	
15	11.27~11.28	특허법원 최신판례 동향(판사초청)	
소계		15회	-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5월 중	특허엔지니어링 전문 과정	30만
2	11월 중		추후 공지
소계		2회	-

지식재산 국제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10.25~11.2	지식재산 실크로드_서유럽(스위스·독일) - 해외연수	600만
소계		1회	-

맞춤형 단체위탁교육



- 상기 교육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ipcampus.net>)
- 회원사: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의 경우 할인가 혜택 제공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NO!

일상생활에서
마이핀 (My-PIN)으로
본인확인 하세요!



마이핀이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13자리 번호

어떻게 발급받나요?

- 온라인 발급** 공공I-PIN센터 (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 (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www.ok-name.co.kr)
- 방문 발급**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처 본사 및 지점

어느 곳에서 쓰나요?

대형마트, 백화점, 항공사, 여행사, 홈쇼핑, 전자제품 대리점, 공공 도서관 등



안전행정부



KLID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나에게 **꼭** 맞는 취업 정보 쉽게 찾을 수는 없을까요?

최신 채용정보와 지식을 공유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재들을 위한 취업포털 사이트에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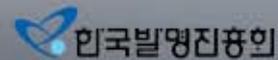
ipin (www.ipin.or.kr)에는

인재가 희망하는
지식재산기업 채용정보와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인재정보로
가득합니다.



ipin 제공서비스

- ▶ 지식재산분야 채용 및 인재정보
- ▶ 지식재산분야 최신뉴스 및 교육/행사정보
- ▶ 각종 지식재산 정보와 취업 노하우 공유
- ▶ 언제 어디서나 보다 쉽게 만나는 모바일 IPIN(m.ipin.or.kr)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245개

실생활 체감형 과제 선정
국민안전 분야 90개
국민생활 개선분야 155개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학교 안전교육 개선 등
생활안전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개인정보
유출 근절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근절



불량식품 척결,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대포차량
대포폰
대포통장 근절



00식당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긴급구조
소방활동 방해 근절



희망의 새시대



국무조정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개방

공유

협력

소통



안전행정부
www.gov30.kr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제도입니다.

우리 학교가 행복해졌어요

- 
진로탐색 활동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미래를 그려보아요.
- 
학생 중심 수업
 시험에서 벗어나 생생한 지식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스스로 탐구해요.
- 
동아리 활동
 관심 있는 동아리에 참여해 친구들과 함께
꿈과 끼를 키워요.
- 
예술·체육 활동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아봐요.



대한민국 국방부
함께해요! 대한가군

국방 헬프콜

SOS!



24시간 365일!

• 군전화, 공중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든 전화로 신고/상담 가능

• 사이버신고/상담

- 인터넷: 부대별 홈페이지 "국방헬프콜" 배너
-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진실을 추구하고
인권을 보호한다!

ARS

1번 국군생명의전화 전문상담관 수신

-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 상담, 병영생활 고충상담 등

ARS

2번 성범죄신고/상담 전문상담관 수신

- 군내 성 관련 인권침해 신고 및 피해자 상담 등

ARS

3번 군범죄신고/상담 국방부, 각군본부 헌병상황실 수신

- 군인/군무원이 관련된 각종 범죄, 군과 관련된 민간인 범죄
- 병영내 악·폐습/인권침해/군기문란 행위/각종 사고우려요인
- 부정군수품 거래 및 유통관련 범죄
- 기타 군과 관련된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 등

※ 군관련 범죄신고시 최고 5000만원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떠나세요 내 곁에 내 사랑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찬찬히 바라보세요
한 걸음 느리게 걸으세요
작은 자연에 귀 기울여보세요
시간을 이겨온 이 땅의 힘에
감동할 것입니다



[울산 간절곶]

을 가을, 추억 가득한 당신만의 '관광주간' 을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관광 할인혜택과 가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관광주간!
지금 바로 [관광주간]을 검색해 보세요. (<http://fall.visitkorea.or.kr>)



-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교육부, 인건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어행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아우토어산업협회
- 참여기업**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하나은행, 하나HSK카드, 한화리조트, SK에너지, SK렌터카, 금호고속, 세일투니잇, 엔제리니스 키미, 콜빙, 호텔앤조이



2014 관광주간
(9.25~10.5)

통통 튀는 젊은 아이디어,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나만의 리더를 잡았다!

바로 지금,
창조경제타운을
방문하세요!
creativekorea.or.kr

"나만의 창업 성공스토리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친구와 함께 **청년창업 런웨이**에 가게 되었다.
젊은 창업가들의 성공스토리,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니 열정이 쑥! 덕분에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창업에 대한 꿈을 실제로 이뤄보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김유영(21세) _ 대학생, 창업 동아리 회원

"우리만의 서비스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는 서비스로 창업을
준비하던 중, 미래부가 주최하는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다.
결과는 최우수상! 우리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이제, 우리의 무대는 전 세계다.

박혜령(26세) _ MyDrives 공동대표

"내 머릿속 무한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식사 후 친구들과 이를 닦다가 떠오른 아이디어,
이동용 충치체크치솔!
이후 **창의IT 융합 아이디어 캠프**에 출품했고,
기대치도 없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상 속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나, 나만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갈 자신감이 생겼다.

정희원(22세) _ 대학생



"또 하나의 한류,
K-웹툰의 길로 열거합니다"

무작정 만화가 좋아, 만화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다
뜻 맞는 이들과 의기투합, 글로벌 웹툰 서비스를
개발했다. 우리는 **글로벌 K-스타트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투자도 유치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플랫폼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웹툰으로 여는 한류, 선두에 '레진 코믹스'가 있다.

한희성(31세) _ 대표, (주)레진코믹스 대표이사

www.creativekorea.or.kr



지금 미래부의 손을 잡으세요. 대한민국 1천만 청년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손 놓지 않겠습니다.

청년창업 런웨이

청년 기업가의 창업경험을 소개하고, 창업 컨설턴트와 청중이 참여하며 소통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창의IT융합 아이디어 캠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문 연구원과의 1대1 멘토링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K-스타트업

창의적인 신규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에서 수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화 한번으로 기업 애로 해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는 기업의 궁금한 사항을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 (월-금, 09:00~18:00)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기업마당**  www.1357.go.kr

₩ 자금 상담

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공의 정책자금 및 기보/신보 보증관련 이용절차 상담

기술개발(R&D) 상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신청부터 사업비 사용
승인까지 상담

창업 상담

법인설립절차, 공장설립, 창업보육센터 입주 문의,
창업지원 사업 신청 등 창업관련 절차/법·제도/지원
사업 상담

소상공인 상담

소기업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온누리상품권 구매
환불, 전통시장 시설행태화 지원 등 소상공인·전통
시장 지원사업 상담

관료/수출 상담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공공구매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수출 역량 강화사업 등 수출지원사업 관련 상담

인력 상담

산업기능요원제도,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력지원사업 상담

국민을 지키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으로
해양안전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면허·운임제도 개편 등 운영체계 개선
여객선 공영제·현대화 추진, 화물과적 근절 및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지정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

2014. 12. 11 - 12
부산 벅스코

회의명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2014년 12월 11일~12월 12일
장소	부산 벅스코
참석	한·아세안(10개국) 정상
슬로건	신뢰구축·행복구현



100만 세입자와 함께 합니다! 월세 지원받는 주거급여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달라 지는 점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131만원~173만원 수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단위 : 만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3%		64	109	141	173	205	237

※ 대략적인 금액으로 본 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음

시행 시기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사업 시행시기는(신청시기)는 별도 홍보예정입니다.

3년내 혁신, 30년내 성장

기술·아이디어가 최고의 담보인 기술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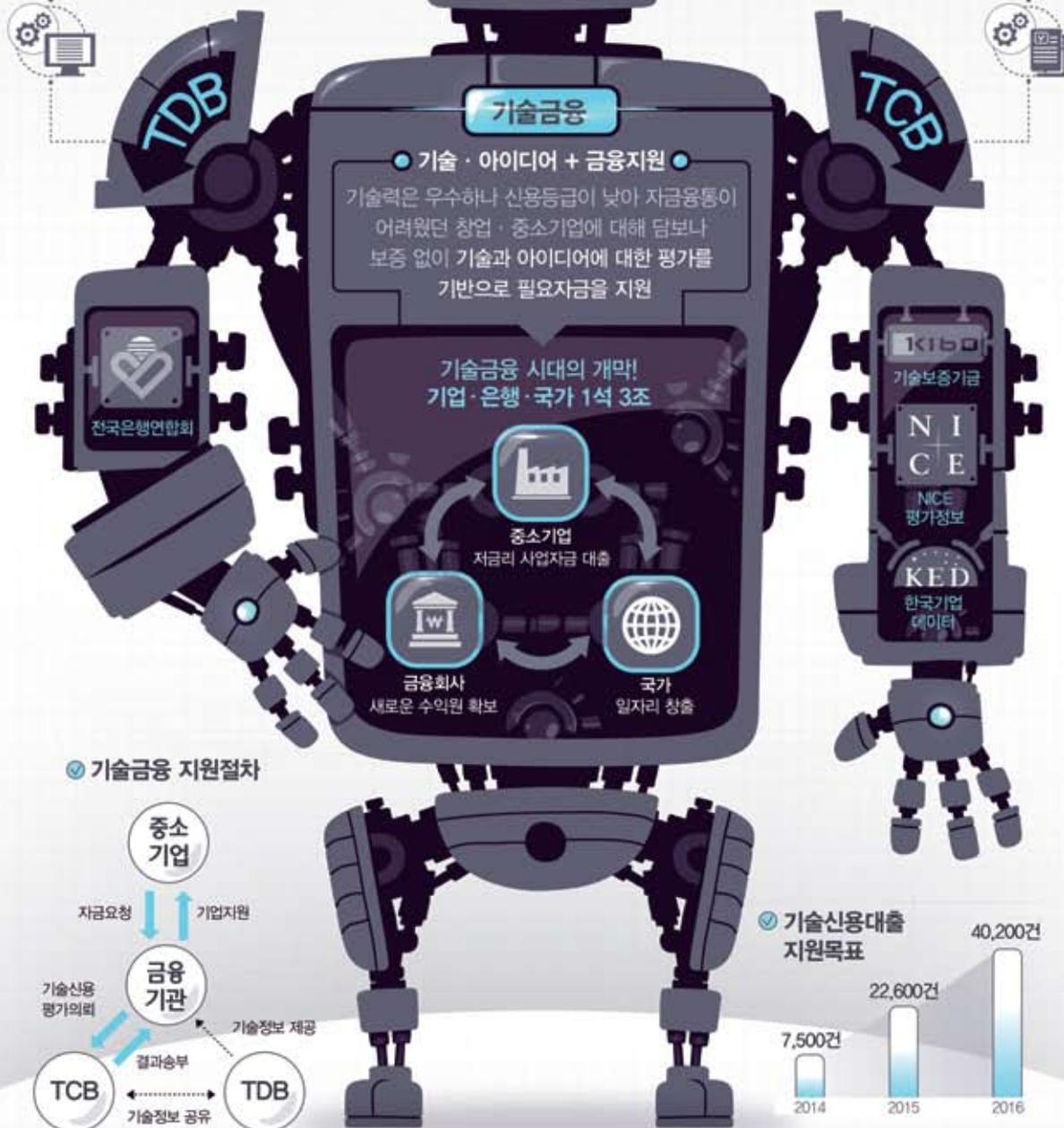
창업에 대한 열정을 응원합니다!

기술정보DB(T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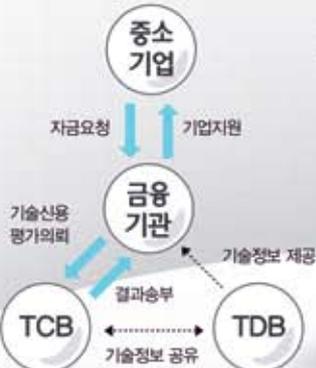
전국은행연합회
은행 여신심사, TCB 기술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 제공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보증기금,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금융회사의 수요에 따라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정보를 산출



기술금융 지원절차



기술신용대출 지원목표



"기술의 가치를 바로 보는 창조경제의 시대, 기술금융이 열어줍니다"

전설 찾아 두근두근 이야기 마을에 놀러 갈래?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열가지 '이야기 마을' 여행



START

경기 여주 서화마을
"까악까악 원님오네 원님오네"

- 원님 행차고개
- 단종 유배길
- 꽃누르미 체험
- 여주산병

강원 태백 구문소마을
"염씨 용왕국 납치사건"

- 구문소동굴
- 고생대 화석
- 사시샘이 소리

강원 양구 오미마을
"양구를 사랑한 효자현감"

- 수입천 트래킹
- 두타연 폭포
- 뱃목체험
- 백자 빚어보기

충남 금산 평촌마을
"신령님이 사는 팽낭구와 동구나무"

- 기지바위
- 팽낭구와 동구나무
- 농바우교시기

전북 남원 매촌마을
"부처님과 내기해서 얻은 새색시"

- 야생차 군락지
- 마애불 입상
- 덕음차 체험

전남 순천 용오름마을
"별 받은 용 총각, 하늘로 올라가던 날"

- 용소계곡, 당신제
- 약초둘레길
- 두부체험, 밀랍공예

전남 순천 향매실마을
"용마 탄 장군이와 상좌승"

- 상좌봉
- 당산나무
- 매실체험

전남 무안 월선마을
"명당을 빼앗긴 부자, 명당을 얻은 노인"

- 전조제
- 고라실길 산책
- 쌀겨효소 체험

경남 사천 성방마을
"호박이 닮꼴째 굴러 들어왔네"

- 다슬기화석
- 호박축제
- 고누놀이

경남 창녕 우포가시연꽃마을
"연꽃이 되었네, 판바우와 바우덕"

- 우포늪 생태체험
- 창포체험
- 말뚝공예

Q. 다음 중, 꼭 칼퇴사수해야하는 날은?

월 화 **수** 목 금

가족사랑의 날!!!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하시나요?

“엄마, 아빠 저는 수요일이 기대돼요!”

수요일은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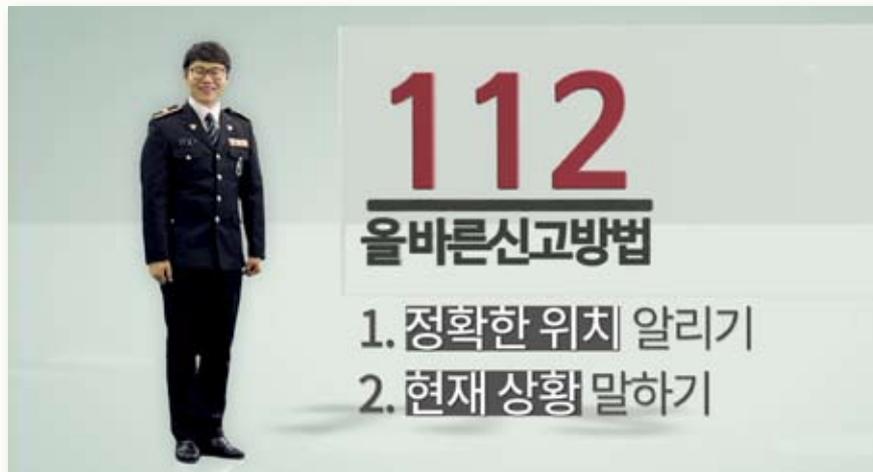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가족들이 일주일에 최소 하루 만큼은 정시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112 신고 방법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112 신고가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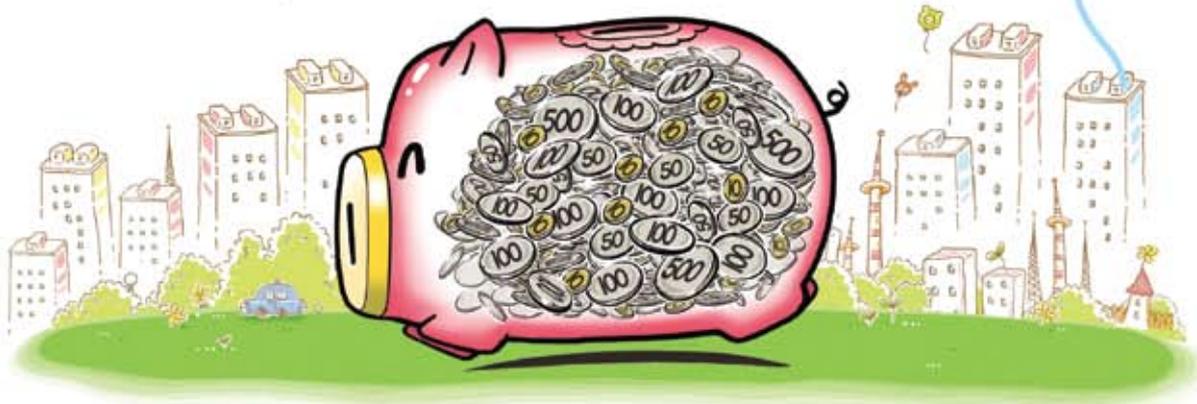


1. 정확한 위치 알리기
2. 현재 상황 말하기

우리 아파트 관리비

속보이게 해드립니다

나라장터
민간개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민간개방

나라장터
민간개방

입찰·계약·대금지급까지
클릭 한 번으로 완성!

공공기관만
이용



공공기관+민간
공동이용

효율성 **쑥**
투명성 **쑥**

2013년 아파트관리사무소
영농·어조합법인

2014년 비영리단체

2015년 중소기업

2016년 전·면·개·방

나라장터
개방효과

1 투명한 거래

입찰·낙찰 정보 실시간 공개

2 최고의 선택

28만여 개 조달업체 경쟁

3 경제적 구매

거래가격 정보 개방

4 거래비용 절감

서류 제출없이 업무효율 향상

달라진
3가지!

1 조달과정 전자화

조달정보 실시간 공개

2 단일 창구

4만8천 공공기관, 28만 조달기업 이용

3 원스톱 서비스

150여 개 공공기관 시스템 연계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

익명신고가 가능한
정부합동 부정·부패신고센터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신고자 신원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서
신고자의 용기에 안심을 더해드립니다



12월 31일 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서
5대 핵심분야 부패척결을 중점 추진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국가혁신의 첫 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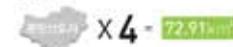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의 매력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남쪽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건설 중인 중앙행정기능 중심지로 하는 복합형 자족도시

면적 :  X 4 = 72.91km²



1 세계 최초의 환상형 도시 (2-Ring city)

환상형 링 모양을 따라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자식기반의 6개 주요 도시기능을 거점별로 분산 배치



중앙녹지공간 : 광장과 국내 최대규모의 녹지공간 조성

행복도시 개발지역 : 도시의 6개 주요 기능을 분산 배치

주변녹지공간 : 도시 주변을 녹지로 보전하여 개발 완충 역할 수행

2 녹색심장을 가진 국내 최고의 친환경 도시

도시의 중앙을 집중 개발하는 타 도시와 달리 중심부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허파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전체 면적의 **52%** 를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4 기능·미관·자연이 잘 어우러진 디자인 명품 도시

도시 통합디자인, 7대 경관 기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도입·적용, CO2 70% 감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최첨단 설계기법 적용



3 쾌적한 5無 도시

점모주택, 콘크리트담장, 전봇대, 광고입간판, 쓰레기통 없는 쾌적하고 친환경적 도시 건설



6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교육도시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유지하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스마트스 도입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우수대학 유치로 세계적 명품교육 시행

5 선진국 수준의 문화·예술·레저도시

생활권 내 쉽게 이용가능한 도서관과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 공연장, 체육관 등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공공문화 인프라 구축



대한민국	행복도시
평균 학생 수	평균 학생 수
32명	20~25명

7 어디서나 빠르게 오가는 사통팔달 교통도시

2개 KTX, 4개 고속도로, 3개 국도, 13개의 광역도로가 연결되는 국가 교통망의 중심, 직주근접(住近)을 구현하는 도시상계로 대중교통 분담률 70%의 친환경 녹색교통 실현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14억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농수산물 개방 최소화 약속 지켰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14억 인구의 중국시장이 더 크게 열립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수출관세를 즉시 철폐, 458억불의 수출관세는 10년 내 철폐



수출기업의 비관세 장벽이 더 낮아집니다.

7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의무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특혜관세 사후 신청, 중국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등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중국 농수산물의 93%(농산물 91%, 수산물 99%)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고품질 친환경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 기대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경제는 물론 문화 관광 교류 활성화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

www.kipa.org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창조와 도전으로 반짝이는
'발명특허'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